

무예제보번역속집
(武藝諸譜翻譯續集)

무예제보번역속집(武藝諸譜翻譯續集) 해제

《무예제보번역속집(武藝諸譜翻譯續集)》은 1610년(광해군 2) 훈련도감의 도청(都廳)인 최기남(催起南; 1559~1619)이 편찬한 것으로 1598년 간행된 《무예제보(武藝諸譜)》의 내용을 보충한 1권으로 된 무예실기서이다.

조정이 군사병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임진왜란 직후 당시 관리였던 한교(韓嶠)가 선조(宣祖)의 명으로 1598년(선조 31) 《무예제보》를 편찬하였고, 여기에 빠진 것을 보충하여 속집을 간행할 즈음 제조(提調) 김수(金睟)가 《일본고(日本考)》 4책을 가져와서 그중 일본의 지지(地誌), 토속(土俗), 구술(寇術), 검제(劍制)를 덧붙여 편찬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무예제보》에는 6기만 기재하고 권(拳), 언월도(偃月刀), 구(鉤), 창(槍), 검(劍) 등의 기예는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무예제보번역속집》의 발문에, “선왕이 《신서》민본(閩本)을 명나라 장수에게서 얻었다. 아래의 권보(拳譜) 50도(圖) 또한 그 가운데에 실려 있는데, 바로 척장(戚將)이 뒤에 지어서 넣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도에 실리지 않았다. 이에 이미 민본에 의하여 차례로 편찬하였다. 또한 당본(唐本)을 얻었는데 《새보전서(賽寶全書)》 가운데 송(宋)나라 태조(太祖)의 권법 32세를 서로 참고하고 고증하여 빠진 부분을 보충하여 이름을 《무예제보속집(武藝諸譜續集)》이라 고치고 선사(繕寫)하여 올린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무예제보번역속집》은 《무예제보》를 편찬할 때 넣지 않았던 《기효신서(紀效新書)》의 ‘권보 50’과 《새보전서》의 ‘송태조 권법 32’을 보충하여 편찬한 것이었다. 따라서 《무예제보》에 기재되어진 6기 외에 다양한 무예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권보, 왜검 등을 보충한 것이며, 또한 일본군을 통한 검술의 교습이 넓게 행하여진 것을 수반하여 무예를 정리할 필요성에서 편찬 되어진 것이었다

내용은 여러 가지 형태의 권보(拳譜) 42도(圖)와 청룡언월도보(靑龍偃月刀譜), 협도근보(夾刀棍譜), 왜검보(倭劍譜) 등과 그 번역문, 그리고 신서 왜검도(新書倭劍刀), 일본국 지도 등이 수록되어 있고, 부록에는 일본고(日本考)를 실어서 자주 침략하는 왜구들에 대하여 그 본거지 형편과 왜선(倭船)과 구술(寇術), 왜도(倭刀) 내용까지 장병들에게 알리고자 하였으며, 정전출행일진(征戰出行日辰)·첩법(捷法)·정행소금(征行所禁) 등을 이용한 출정에 임하는 금기 사항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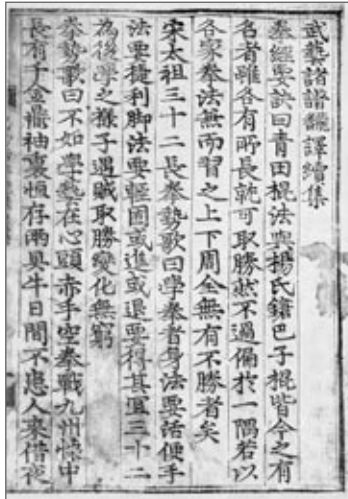
권법과 검법의 경우 그 동작들을 그림으로 자세히 보여주면서 설명을 곁들여 놓았고 일본의 지리와 검법·전술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책의 말미에 ‘적국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일본의 재침에 대비한 자료로 보인다.

《무예제보번역속집》은 《무예제보》와 더불어 1790년(정조 14)에 발간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모체가 되었다.

《무예제보번역속집》의 원본은 목판본 1책이며, 크기는 가로 19.3cm, 세로 30cm이다. 2001년도에 보물 제1321호로 지정되어 현재 계명대학교 동산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60여 쪽 분량에 재질은 한지이며, 한문과 한글이 동시에 표현되는 특별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는 하나 밖에 없는 진귀한 판본으로 서지학·체육학뿐만 아니라 17세기 초기의 국어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무예제보번역속집

1) 권보(拳譜)	167
2) 권세총도(拳勢總圖)	183
3) 청룡언월도제(靑龍偃月刀製)	192
4) 청룡언월도보(靑龍偃月刀譜)	193
5) 청룡언월도세총도(靑龍偃月刀勢總圖)	199
6) 협도곤제(夾刀棍製)	203
7) 협도곤보(夾刀棍譜)	205
8) 협도곤총도(夾刀棍總圖)	211
9) 구창도(鉤鎗圖)	212
10) 왜검보(倭劔譜)	215
11) 왜검총도(倭劔總圖)	224
12) 일본고(日本考)	245
13) 왜선(倭船)	260
14) 구술(寇術)	263
15) 왜도(倭刀)	268
16) 절의(切意)	271
17) 발문(跋文)	275



- 1) 심두(心頭) : 염두(念頭)와 같이 마음가짐/의식의 근본동기를 지칭함.
- 2) 천금정(千金鼎) : 크나큰 포부/이상.
- 3) 양구우(兩具牛) : 소의 엄청난 힘을 비유해서 아주 잘 단련된 양주먹을 지칭.
- 4) 조광윤 : 송(宋)을 세운 초대황제. 인물색인 참조
- 5) 구주(九州) : 중국(中國) 우왕(禹王) 때 중국전체를 9개 주(州)로 나눈 것으로, 여기서는 '천하(天下)'를 의미함.

拳經要訣曰, 青田棍法與楊氏鎗巴子棍, 皆今之有名者. 雖各有所長就可取勝, 然不過偏於一隅. 若以各家拳法, 兼而習之, 上下周全, 無有不勝者矣.

宋太祖三十二長拳勢歌曰, “學拳者, 身法要活便, 手法要捷利, 腳法要輕固, 或進 惑退要得其宜.” 三十二爲後學之樣子, 遇賊取勝, 變化無窮.

拳勢歌曰, “不如學藝在心頭¹⁾, 赤手空拳戰九州. 懷中長有千金鼎²⁾, 袖裏恒存兩具牛³⁾. 日間不患人來借,

《권경요결(拳經要訣)》에 이르기를, 청전곤법(靑田棍法)과 양씨창(楊氏鎗)과 파자곤(巴子棍)이 모두 지금 유명한 것이다. 비록 각기의 장점을 따르면 이길 수는 있으나 한 귀퉁이에 치우침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각 가의 권법으로써 겸하여 익히어 상하가 두루 온전하면, 이기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송태조(宋太祖)⁴⁾ 32장권세가(長拳勢歌)에 이르기를, “권법을 배우는 자로서 신법(身法)이 활발하고 편리함을 구하며, 수법(手法)은 민첩하고 예리함을 구하고, 각법(腳法)은 가볍고 안정됨을 구하면 혹 나아가고 혹 물러남에 그 마땅함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32장권세는 후학을 위한 본보기이니, 적을 만나 승리를 취하는 데 변화가 무궁하다.

권세가에 이르기를,

“기예를 배우는 것이 (다른 것과) 같지 않아 마음가짐에 있으니,

맨손 빈주먹으로 구주(九州)⁵⁾와 싸울레라.

가슴 속에는 큰 천금같은 술이 있고,

소매 속에는 항상 갖춘 소 두 마리.

낮에는 남이 와서 빌려가도 근심이 없고,

夜來系怕賊來偷。”

拳譜⁶⁾

裸身向東而立作騎虎勢，仍作一條鞭勢，卽以右拳打左肘作順鸞肘勢，便以兩手向上三畫過，進三步作懸脚虛餌勢，用右足作蹙天勢【依賽寶全書補之】又用左足作蹙天勢，進一步又作蹙天勢，旋用左脚退立作指當勢，又以右脚向左橫立作拋架勢，又向左行一步作拗單鞭勢，仍以左拳打右肘作七星拳勢。【騎虎卽全書之龜葉也。一條鞭卽低四品也。順鸞肘卽四目也。懸脚虛餌卽佐四品也。指當卽單鞭也。拋架卽獅子開口也。拗單鞭卽斜身躍步也。七星拳卽封腿也。】



밤이 와도 (도)적이 와서 훔쳐 감을 어찌 두려워하라.”

맨손으로(주먹으로) 연마하는 계보

옷을 벗고 동쪽을 향하여 서서 과호세(騎虎勢)를 하고 그대로 일조편세(一條鞭勢)를 하고 곧 오른 주먹으로 왼쪽 팔꿈치를 쳐 순란주세(順鸞肘勢)를 하고, 편하게 두 손으로 위를 향하여 세 번 휘저어 지나가며 세 걸음 나아가 현각허이세(懸脚虛餌勢)를 하여 오른발로써 축천세(蹙天勢)로 하고, 【《새보전서(賽寶全書)》에 의하여 보탠다.】 또 왼발로써 축천세를 하고 한 걸음 나아가 또 축천세를 하고, 즉시 윈다리로써 물러서서 지당세(指當勢)를 하고 또 오른다리로써 왼쪽으로 향하여 비껴서서 포가세(拋架勢)를 하고, 또 왼쪽으로 향하여 한걸음 걸어 요단편세(拗單鞭勢)를 하고, 그대로 왼 주먹으로 오른 팔꿈치를 쳐 칠성권세(七星拳勢)를 하라.【과호는 곧 전서⁷⁾의 귀엽(龜葉)이다. 일조편은 곧 저사품(低四品)이다. 순란주는 곧 사목(四目)이다. 현각허이는 곧 좌사품(左四品)이다. 지당은 곧 단편(單鞭)이다. 포가는 곧 사자개구(獅子開口)이다. 요단편은 곧 사신약보(斜身躍步)이다. 칠성권은 곧 봉퇴(封腿)이다.】

6) ※역자註: 원래 무술 초식(招式) 이름은 해석하는 법이 아니다. 고전적 무술 초식일수록 사자성어(四字成語)로 명칭이 되어 있으니, 그 의미를 확실히 터득하면 어느 정도는 그 수법의 심법(心法)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스승에게 직접 ‘구전심수(口傳心授)’를 받아야 되고, 비록 약간 해당초식(招式)에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말이나 글로 그 지극함을 감히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식 이름은 직역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7) 《새보전서(賽寶全書)》를 말한다.(아마도 새보전서에 실려있는 용어(用語)들이 먼저 인식이 되어 있는 바로써 뒤늦게 들어온 ‘32세 장권’의 용어들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한 것 같다.)



騎虎
一條鞭
順鸞肘
懸脚虛餌

과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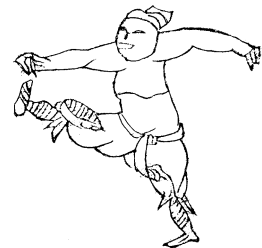
일조편



순란주



현각허이



蹙天

指當

拋架

拗單鞭



축천



지당



포가



요단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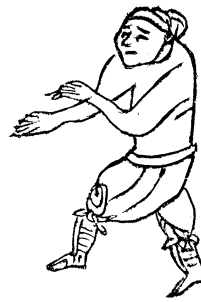




七星拳

轉身向西，以兩手向上三畫掛作拗單鞭勢，即退三步作蹙天勢，仍用兩手三披過旋作探馬勢，用右脚向左橫立作井欄勢，翻身向北作倒插勢，因向西以左拳打右肘作中四平勢。【探馬即高探馬也。井欄即升欄也。倒插即抬陽也。中四平即運風也。】

칠성권



몸을 돌려 서쪽으로 향하여 두 손을 위로 향하여 세 번 휘저어 걸어치고 요단편세를 하면서 바로 세 걸음 물러나 축천세를 하고, 그대로 두 손을 써서 세 번 헤치고 즉시 탐마세(探馬勢)를 하고 오른 다리를 써 왼쪽으로 향하여 비껴서서 정란세(井欄勢)를 하고, 몸을 뒤집어 북쪽으로 향하여 도삽세(倒插勢)를 하고, 그대로 서쪽으로 향하여 왼 주먹으로 오른 팔꿈치를 쳐 중사평세(中四平勢)를 하라. 【탐마는 곧 고탐마(高探馬)이다. 정란은 곧 승란(升欄)이다. 도삽은 곧 태양(抬陽)이다. 중사평은 곧 운풍(運風)이다.】

拗單鞭

探馬

井欄

倒插



요단편



탐마



정란



도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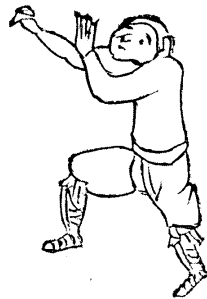




中四平

轉身向東作高四平勢，仍作拗單鞭勢，向左作探馬勢，頓右足進左脚作雀地龍勢，回身又作高四平勢，仍作拗單鞭勢，用兩手向上一畫掛進一步作下插勢，便退左脚立定作一霎步勢，即筋斗作伏虎勢，再翻身又作伏虎勢，仍起立作拗鸞肘勢，

중사평



몸을 돌려 동쪽으로 향하여 고사평세(高四平勢)를 하고, 그대로 요단편세를 하고, 왼쪽으로 향하여 탐마세를 하고, 오른발을 머물고 왼쪽 다리를 나와 작지룡세(雀地龍勢)를 하고, 몸을 돌려 또 고사평세로 하며, 그대로 요단편세를 하고, 두 손을 써서 위로 향하여 한 번 휘저어 한 번 걸고 한 걸음 나아가 하삽세(下插勢)를 하고 곧 왼다리를 물러서서 일삼보세(一霎步勢)를 하고, 곧 근두(筋斗)질 하여 복호세(伏虎勢)를 하고 다시 몸을 뒤집어 또 복호세를 하고, 그대로 일어서서 요란주세를 하고,

向左橫一步用兩手向上一畫掛作拗單鞭勢，仍作拈肘勢。【高四平卽倒上看也。下插卽鬼拜燈也。一霎步卽懶扎衣也。伏虎卽水魚也。拗鸞肘卽王候三比也。拈肘卽四封也。】

高四平

拗單鞭



왼쪽으로 향하여 비껴 한걸음 걸어 두 손을 써서 위로 향하여 한 번 걸어 치고 요단편세를 하면서 그대로 점주세(拈肘勢)를 하라. 【고사평은 곧 도상간(倒上看)이다. 하삼은 곧 귀배등(鬼拜燈)이다. 일삼보는 곧 난찰의(懶札衣)이다. 복호는 곧 수어(水魚)이다. 요란주는 곧 왕후삼비(王候三比)이다. 점주는 곧 사봉(四封)이다.】

고사평



요단편





探馬
 雀地龍
 高四平
 拗單鞭

탐마



작지룡



고사평



요단편



下插

一霎步

伏虎

拗鸞肘



하삽

일삽보



복호

요란주





拗單鞭

拈肘

轉身向西，用兩手向上三畫過作拗單鞭勢，退三步翻身以上以右手打左足作朝陽勢，仍作鬼蹴脚勢。【朝陽即書虎也。鬼蹴脚即右四品也。】

요단편

짐주



몸을 돌려 서쪽으로 향하여 두 손을 써서 위로 향하여 세 번 휘저어 지나쳐 요단편세를 하고, 세 걸음 물렀다가 몸을 뒤집어 솟아올라 오른손으로 왼발을 치며 조양세(朝陽勢)를 하고 그대로 귀축각세(鬼蹴脚勢)를 하라.【조양은 곧 서호(書虎)이다. 귀축각은 곧 우사품(右四品)이다.】

拗單鞭

朝陽

鬼蹴脚



요단편



조양



귀축각





轉身退一步作旗鼓勢，仍頓右足作獸頭勢，卽起立頓右足作拗單鞭勢，仍以兩手遽地用右足循地一週便起立作丘劉勢，用兩手打右足退右腳立定作埋伏勢，仍起立用兩手向上一畫過進一步用左足一踢。【旗鼓卽招討也。獸頭卽猛虎靠山也。丘劉卽陽縣脚金鷄也。埋伏卽脚手用四品追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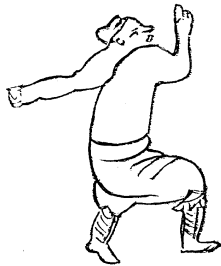
旗鼓

獸頭

몸을 돌려 한 걸음 물렀다가 기고세(旗鼓勢)를 하고, 그대로 오른발을 머물러 수두세(獸頭勢)를 하고 곧 일어서서 오른발을 머물러 요단편세를 하고, 그대로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오른발로 땅을 따라 한번 돌려서 바로 일어서서 구유세(丘劉勢)를 하고, 두 손을 써서 오른발로 치고 오른다리를 물러서서 매복세(埋伏勢)를 하고 그대로 일어서며 두손을 써서 위로 향하여 한번 휘저어 지나치고 한 걸음 나아가 왼발을 써서 한 번 차라. 【기고는 곧 초토(招討)이다. 수두는 곧 맹호고산(猛虎靠山)이다. 구유는 곧 양현각금계(陽懸脚金鷄)이다. 매복은 곧 각수용사품추(脚手用四品追)이다.】

기고

수두



拗單鞭

丘劉

埋伏



요단편

구유



매복





向西立定用兩手向上三畫過作拗單鞭勢，退三步作蹙天勢，仍作倒騎龍勢，向左橫一步作鷹刷翼勢，以兩手向後仍作擒拿勢，又作當頭砲勢。【倒騎龍即用探馬也。擒拿即拗肘也。當頭砲即獅蹬脚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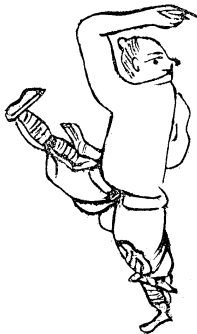
拗單鞭

蹙天

서쪽으로 향하여 서서 두 손을 써서 위로 향하여 세 번 휘저어 지나치며 요단편세를 하고, 세 걸음 물러 축천세(蹙天勢)를 하고, 그대로 도기룡세(倒騎龍勢)를 하고, 왼쪽으로 향하여 비껴 한 걸음 걸어 응쇄익세(鷹刷翼勢)를 하고, 두 손으로 뒤로 향하여 금나세(擒拿勢)를 하고, 또 당두포세(當頭砲勢)를 하라
 【도기룡은 곧 용탐마(用探馬)이다. 금나는 곧 요주(拗肘)이다. 당두포는 곧 사등각(獅蹬脚)이다.】

요단편

축천



倒騎龍

鷹刷翼

擒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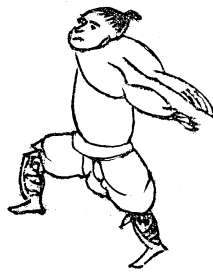
當頭砲



도기룡



응쇄익



금나



당두포





翻身向北橫一步，仍東向立作神拳勢，又向南橫一步，仍東向立作鴈翅側身勢畢。【神拳即觀音側身也。鴈翅側身即生馬也。】

神拳

鴈翅側身

몸을 뒤집어 북쪽으로 향하여 비껴 한 걸음 걸어, 그대로 동쪽으로 향하며 신권세(神拳勢)를 하고, 또 남쪽으로 향하여 비껴 한 걸음 걸어서, 그대로 동쪽으로 향하여 서서 안시측신세(鴈翅側身勢)를 하고 마쳐라.【신권(神拳)은 곧 관음측신(觀音側身)이다. 안시측신은 곧 생마(生馬)이다.】

신권

안시측신



拳勢總圖

進 騎虎 → 一條鞭 → 順鸞肘 → 右蹙天 → 左蹙天 → 蹙天
 → 懸脚虛餌【拋架 指當 七星拳 拗單鞭】
 退 拗單鞭 → → → 探馬 → 井欄 → 倒插 → 中四平
 進 高四平 → 拗單鞭【回身】 → 高四平 → 拗單鞭 → 下插
 → 一霎步 → 伏虎【拗肘 拗單鞭 拗鸞肘】
 退 拗單鞭【回身】 → 朝陽鬼蹴脚
 進 旗鼓 → 獸頭 → 拗單鞭【回信】 → 丘劉 → 埋伏
 退 拗單鞭 → → → 騎龍 →



권세총도

진(進) 과호(騎虎) → 일조편(一條鞭) → 순란주(順鸞肘) → 우축천(右蹙天) → 좌축천(左蹙天) → 축천(蹙天) → 현각허이(懸脚虛餌)【포가(拋架) 지당(指當) 칠성권(七星拳) 요단편(拗單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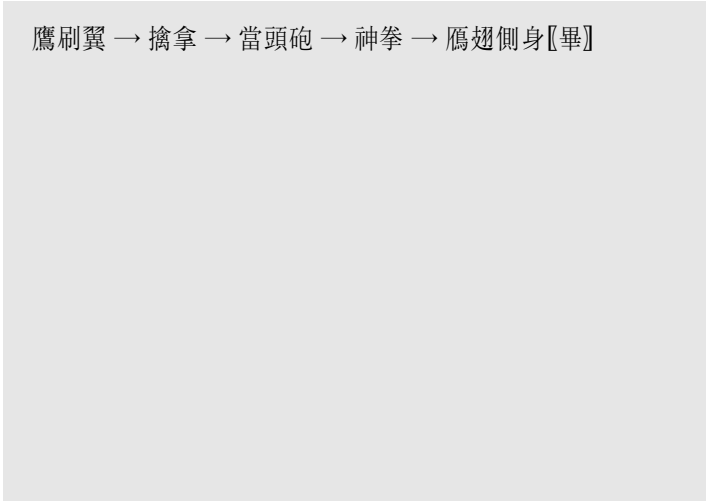
퇴(退) 요단편(拗單鞭) → → → 탐마(探馬) → 정란(井欄) → 도삽(倒插) → 중사평(中四平)

진(進) 고사평(高四平) → 요단편(拗單鞭)【회신(回身)】 → 고사평(高四平) → 요단편(拗單鞭) → 하삽(下插) → 일삼보(一霎步) → 복호(伏虎)【요주(拗肘) 요단편(拗單鞭) 요란주(拗鸞肘)】

퇴(退) 요단편(拗單鞭)【회신】 → 조양귀축각(朝陽鬼蹴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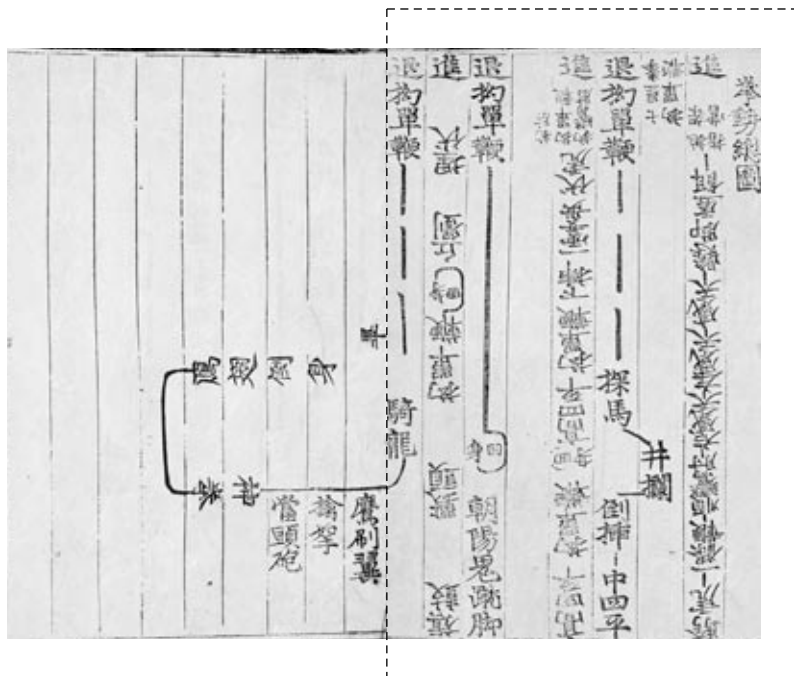
진(進) 기고(旗鼓) → 수두(獸頭) → 요단편(拗單鞭)【회신】 → 구유(丘劉) → 매복(埋伏)

퇴(退) 요단편(拗單鞭) → → → 기룡(騎龍) →



※ '권세총도(拳勢總圖)' 에서 동작 진행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 앞의 그림을 가져와서 합쳤다.

응쇄익(鷹刷翼) → 금라(擒拿) → 당두포(當頭砲) → 신권(神拳) → 안시측신(鴈翅側身) 【필(畢)】



拳譜보 주머귀로티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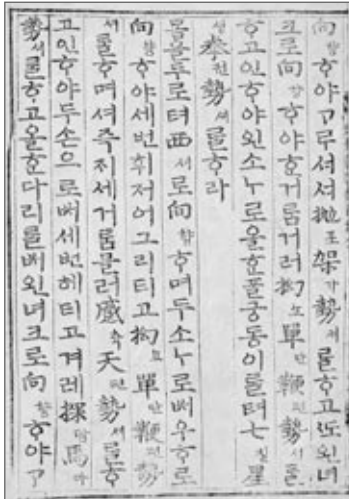
옷 벗고 동으로 向 향하여 서서 驕 과 호 勢 서를 하고 인하여
 一 條 鞭 편 勢 서를 하고 곧 두 손으로 써 우로 向 향하여 세
 번 휘저어 그리치며 세 걸음 나아 懸 현 脚 각 虛 허 餌 이 勢 서하여
 오른 발로써 蹙 축 천 勢 서로 하고 [《賽 시 寶 보 全 전 書 서》를 의
 지하여 補 보 疋 疋 노라]

또 왼 발로써 蹙 稱 天 勢 서를 하고 한 걸음 나아 또 蹙 稱 天 勢
 서를 하고 겨레 왼 다리로써 물러서서 指 지 當 當 勢 서를 하고 또
 오른 다리로써 왼너크로



권보(拳譜) 주먹으로 치는 보

옷 벗고 동으로 향하여 서서 과호세(驕虎勢)를 하고, 인하여
 일조편세(一條鞭勢)를 하고, 곧 두 손으로 써 위로 향하여 세 번
 휘저어 그리치며 세 걸음 나아 현각허이세(懸脚虛餌勢) 하여
 오른 발로써 축천세(蹙天勢)로 하고, [《새보전서(賽寶全書)》를
 의지하여 보탬하노라.] 또 왼발로써 축천세를 하고, 한걸음 나
 아 또 축천세를 하고, 겨레 왼다리로써 물러서서 지당세(指當
 勢)를 하고, 또 오른 다리로써 왼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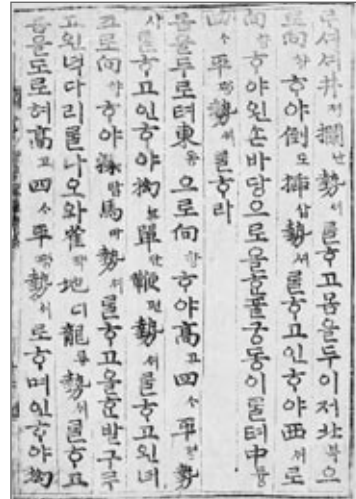


向향하야가로서서抛포架가勢세를 하고또왼너크로向향하
 야한거름거리拗노單單鞭편勢세를 하고인하야왼손노로올
 혼폴궁동이틀터七칠星성拳권勢세를 하라
 몸을두로터西서로向향하며두손노로써우호로向향하야세
 번회저어그리티고拗노單單鞭편勢세를 하며즉지세거름
 물러蹙축天천勢세를 하고인하야두손으로써세번헤티고겨
 레探탐馬마勢세를 하고올한다리를써왼너크로向향하야가

향하여 가로서서 포가세(抛架勢)를 하고, 또 왼쪽으로 향하여
 한걸음 걸어 요단편세(拗單鞭勢)를 하고, 인하여 왼손으로 오
 른팔 궁둥이를 쳐 칠성권세(七星拳勢)를 하라.

몸을 돌려 서로 향하며 두 손으로써 위로 향하여 세 번 휘저
 어 그리치고, 요단편세를 하며 즉시 세 걸음 물러 축천세를 하
 고, 인하여 두 손으로써 세 번 헤치고 겨레 탐마세(探馬勢)를
 하고, 오른 다리를 써 왼쪽으로 향하여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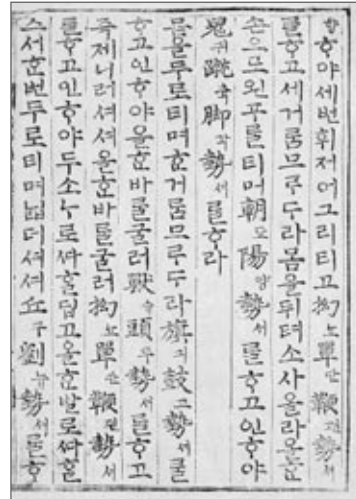
로서서井정欄^난勢^세를 하고 몸을 두이저北^북으로向^향하야
 倒^도도插^삽삼^삼勢^세를 하고인^인하야西^서서로向^향하야 왼손바당으로
 올흔^올폴^폴궁^궁둥이^이를터^터中^중똥^똥四^사스^스平^평평^평勢^세를 하라
 몸을두로터^터東^동동으로向^향하야高^고고^고四^사스^스平^평평^평勢^세를 하고인^인
 하야^야拗^拗노^노單^단單^단鞭^편편^편勢^세를 하고윈^윈너크^크로向^향하야探^탐탐^탐馬^마마
 勢^세를 하고올^올흔^흔발^발구^구르^르고윈^윈너크^크로向^향하야雀^작작^작地^지地^지龍^룡룡
 勢^세를 하고고^고몸을^몸도로^로혀^혀高^고고^고四^사스^스平^평평^평勢^세서로^로하며^며인^인하야^야拗^拗
 노



로서서 정난세(井欄勢)를 하고, 몸을 뒤져 북으로 향하여 도삽
 세(倒插勢)를 하고, 인하여 서로 향하여 왼손바당으로 오른팔
 궁둥이를 쳐 중사평세(中四平勢)를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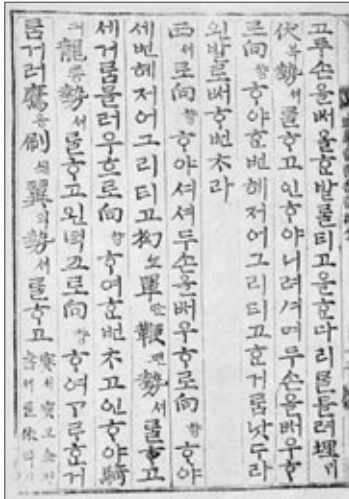
몸을 돌려 동으로 향하여 고사평세(高四平勢)를 하고, 인하
 여 요단편세를 하고, 왼쪽으로 향하여 탐마세를 하고, 오른발
 구르고 왼쪽 다리를 나와 작지룡세(雀地龍勢)를 하고, 몸을 돌
 려 고사평세로 하며, 인하여 요

하야세번휘저어그리치고拗노單단鞭편勢서를 하고세거름
 므르드라몸을뒤터소사올라올흔손으로왼팔틀티머朝도
 陽양勢서를 하고인하야鬼귀蹴축脚脚各勢서를 하라
 몸을두로티머흔거름므르드라旗기鼓고勢서를 하고인하야
 올흔바를굴러獸獸頭두勢서를 하고즉제니리서서올흔바를
 굴러拗노單단鞭편勢서를 하고인하야두소노로자홀딛고올
 흔발로자홀스서흔번두로티머넓더서서丘丘劉劉勢서를 하



하여 세 번 휘저어 그리치고 요단편세를 하고, 세 걸음 물렀다
 가 몸을 뒤쳐 솟아올라 오른손으로 왼팔을 치며 조양세(朝陽
 勢)를 하고, 인하여 귀축각세(鬼蹴脚勢)를 하라.

몸을 돌려 한걸음 물렀다가 기고세(旗鼓勢)를 하고, 인하여
 오른발을 굴러 수두세(獸頭勢)를 하고, 즉시 일어서서 오른발
 을 굴러 요단편세를 하고, 인하여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오른발
 로 땅을 서서 한 번 두로치며 넓더서서 구유세(丘劉勢)를 하



고두손을써올흔발틀티고올흔다리를물러埋미伏복勢서를
 하고인하야니려서며두손을써우호로向향하야흔번헤저
 어그리티고흔거름낫드라원발로써흔번차라
 서서로向향하야서서두손을써우호로向향하야세번헤저어
 그리티고拗노單單鞭편勢서를하고세거름물러우호로向향
 하야흔번치고인하야騎기龍룡勢서를하고왼녁크로向향하
 여그르흔거름거리鷹鷹刷쇄翼의勢서를하고【賽시寶보全全
 書書를依의지

고, 두 손을 써 오른발로 치고 오른다리를 물러 매복세(埋伏勢)를 하고, 인하여 일어서며 두 손을 써 위로 향하여 한 번 휘저어 그리치고 한 걸음 나아가 왼발로써 한번 차라.

서로 향하여 서서 두 손을 써 위로 향하여 세 번 휘저어 그리치고 요단편세를 하고, 세 걸음 물러 위로 향하여 한 번 차고 기룡세(倒騎龍勢)를 하고 왼쪽으로 향하여 가로 한 걸음 걸어 응쇄익세(鷹刷翼勢)를 하고, 【《새보전서(賽寶全書)》】를 의지

ㅎ여補보뎡ㅎ노라] 두손으로써 뒤 ㅎ로向향ㅎ야擒금拿
 勢서를 ㅎ고또當당頭頭砲포勢서를 ㅎ라
 몸을늘 떠北북으로向향ㅎ야 ㄱㄹ ㅎ거름거리인 ㅎ야東동녀
 크로向향ㅎ며神神拳권勢서를 ㅎ고또南남녀 크로向향ㅎ야
 ㄱㄹ ㅎ거름거리서인 ㅎ여東동으로向향ㅎ야 서서鴈안翅지
 側측身신勢서를 ㅎ고마쳐라



하여 보뎡하노라.] 두 손으로써 뒤로 향하여 금나세(擒拿勢)를
 하고 또 당두포세(當頭砲勢)를 하라.

몸을 날려 북으로 향하여 가로 한걸음 걸어 인하여 동쪽으로
 향하며 신권세(神拳勢)를 하고, 또 남쪽으로 향하여 가로 한걸
 음 걸어서 인하여 동으로 향하여 서서 안시측신세(鴈翅側身勢)
 를 하고 마쳐라.



靑龍偃月刀製

刃長二尺，廣四寸，背後居中有枝，長二寸刃一寸。從枝起脊至刀尖漸殺，柄長五尺。

날기러두자히오너비네치니등뒤가온대만가지이시니기러두치오늘히흔치라가지로조차마르세워칼그티니러러漸점점씩고즈르기러는다숫자히라

靑龍偃月도 모양과 만듬

날 길이는 2자이며 넓이는 4치이고, 날 등 뒤 가운데에만 가지가 있으니, 길이는 2치이며 날이 1치이다. 가지를 쫓아 말아 세워 칼끝에 이르러 점점 줄어들고, 자루 길이는 5자이다.

날 길이 두자요 너비 네 치니 등 뒤 가운데만 가지 있으니, 길이 두 치요 날이 한 치라. 가지를 쫓아 말아 세워 칼끝에 이르러 점점 새고 자루 길이는 다섯 자라.

靑龍偃月刀譜

以刀柄筭地而立，用右手執柄近刃作龍躍在淵勢，卽舉劍閣右臂上用右手奉持刀柄作新月上天勢，揮左手進三步。

龍躍在淵

新月上天



靑龍偃月도보 쓰는(연마하는) 계보

칼자루를 땅에 대고 서서 오른손으로 날 자루를 잡되 날 가까이 하여 용약재연세(龍躍在淵勢)를 하고, 곧 칼을 들어 오른 팔 위에 얹고 오른손으로 칼자루를 잡아 신월상천세(新月上天勢)를 하며, 왼손을 들어 휘저으며 세 걸음 나아가라.

용약재연



신월상천





旋用左手爲陽右手爲陰，以執刀柄作猛虎張爪勢，退三步作鷺鳥斂翼勢。

猛虎張爪

鷺鳥斂翼

즉시 왼손을 써서 양으로 하고 오른손을 써서 음으로 하여 칼자루를 잡아 맹호장조세(猛虎張爪勢)를 하고, 세 걸음 물러나 지조염익세(鷺鳥斂翼勢)를 하라.

맹호장조



지조염익



回身作奔霆走空勢，進三步作月夜斬蟬勢，翻身三擊。

奔霆走空

月夜斬蟬



몸을 돌려 분정주공세(奔霆走空勢)를 하며, 세 걸음 나아가 월야참선세(月夜斬蟬勢)를 하고, 몸을 뒤집어 세 번 쳐라.

분정주공



월야참선





回身作霜鶴奮拳勢，退三步作五關斬將勢，翻身向前三擊，又翻身向後一擊。

霜鶴奮拳

五關斬將

몸을 돌려 상골분권세(霜鶴奮拳勢)를 하며, 세 걸음 물러나 오관참장세(五關斬將勢)를 하고, 몸을 뒤집어 앞을 향해 세 번 치고, 또 몸을 뒤집어 뒤를 향해 한 번 쳐라.

상골분권



오관참장



回身作奔霆走空勢，進三步作介馬斬良勢，翻身向前三擊，
進一步一刺。

介馬斬良



몸을 돌려 분정주공세를 하며, 세 걸음 나아가 개마참랑세
(介馬斬良勢)를 하고, 몸을 뒤집어 앞을 향해 세 번 치고, 한 걸
음 나아가 한 번 베어라.

개마참랑





回身作龍光射斗勢，退三步作五關斬將勢，翻身向前三擊，作紫電收光勢畢。

龍光射斗

紫電收光

몸을 돌려 용광사두세(龍光射斗勢)를 하며, 세 걸음 물러나 오관참장세를 하고, 몸을 뒤집어 앞을 향해 세 번 치고, 자전수광세(紫電收光勢)를 하며 마쳐라.

용광사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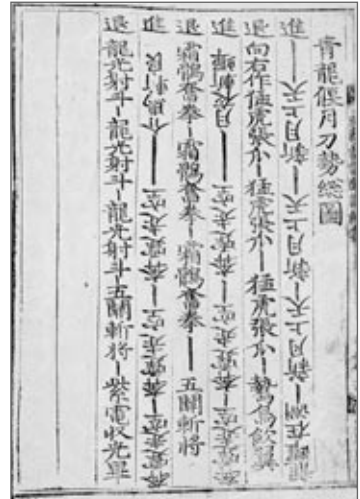


자전수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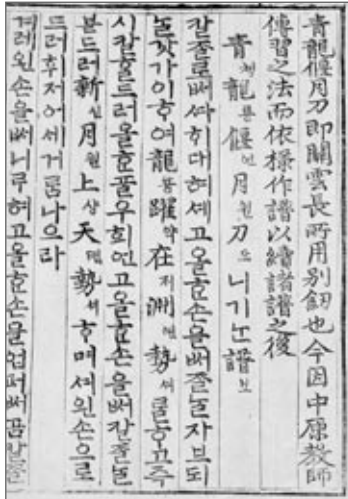
靑龍偃月刀勢總圖

進 龍躍在淵 → 新月上天 → 新月上天 → 新月上天
 退 向右作猛虎張爪 → 猛虎張爪 → 猛虎張爪 → 鷺鳥斂翼
 進 奔霆走空 → 奔霆走空 → 奔霆走空 → 月夜斬蟬
 退 霜鶻奮拳 → 霜鶻奮拳 → 霜鶻奮拳 → 五關斬將
 進 奔霆走空 → 奔霆走空 → 奔霆走空 → 介馬斬良
 退 龍光射斗 → 龍光射斗 → 龍光射斗 → 五關斬將 → 紫電收光畢



靑龍偃月刀勢總圖

진(進) 용약재연(龍躍在淵) → 신월상천(新月上天) → 신월상천(新月上天) → 신월상천(新月上天)
 퇴(退) 향우작맹호장조(向右作猛虎張爪) → 맹호장조(猛虎張爪) → 맹호장조(猛虎張爪) → 지조염익(鷺鳥斂翼)
 진(進) 분정주공(奔霆走空) → 분정주공(奔霆走空) → 분정주공(奔霆走空) → 월야참선(月夜斬蟬)
 퇴(退) 상골분권(霜鶻奮拳) → 상골분권(霜鶻奮拳) → 상골분권(霜鶻奮拳) → 오관참장(五關斬將)
 진(進) 분정주공(奔霆走空) → 분정주공(奔霆走空) → 분정주공(奔霆走空) → 개마참량(介馬斬良)
 퇴(退) 용광사두(龍光射斗) → 용광사두(龍光射斗) → 용광사두(龍光射斗) → 오관참장(五關斬將) → 자전수광(紫電收光) 필(畢)



靑龍偃月刀卽關雲長所用別劍也. 今因中原教師傳習之法, 而依樣作譜以續諸譜之後.

靑龍룡偃언月월刀도니기는譜보
 칼줄로써싸히대혀세고올흔손을써줄늘자브되늘갓가이
 흥여龍룡躍약在在淵淵勢勢셔를흥고즉시칼홀드러올흔폴우
 희언고올흔손을써칼줄늘븐드러新新月월上上天天勢勢셔흥
 며셔왼손으로드러휘저어세거롭나오라
 겨레왼손을써니르혀고올흔손을업퍼써곰칼줄

- 8) 관운장(關雲長) : 인물색인 참조.
- 9) 무술 교사.

청룡언월도는 곧 관운장(關雲長)⁸⁾이 사용한 별검(別劍)이다. 지금 중원(中原)의 교사(教師)⁹⁾가 전습(傳習)한 법에 따라 그대로 보(譜)를 만들어 무예제보의 뒤를 잇는다.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 익히는 보(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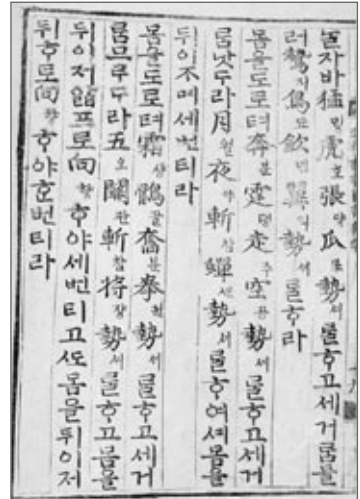
칼자루로써 땅에 대어 서고 오른손을 써 자루를 잡되 날 가까이 하여 용약재연세(龍躍在淵勢)를 하고, 즉시 칼을 들어 오른팔 위에 얹고 오른손을 써 칼자루를 붙들어 신월상천세(新月上天勢)를 하면서 왼손으로 들어 휘저어 세 걸음 나아가라.

즉시 왼손을 써 일으키고 오른손을 얹어서 칼자루

놀자바猛鳴虎호張당爪조勢셔를 하고세거름물러鷺지鳥도
 歛넙翼익勢셔를 하라

몸을도로터奔분霆딩走주空공勢셔를 하고세거름나드라月
 월夜야斬참蟬선勢셔를 하여서몸을뒤이즈며세번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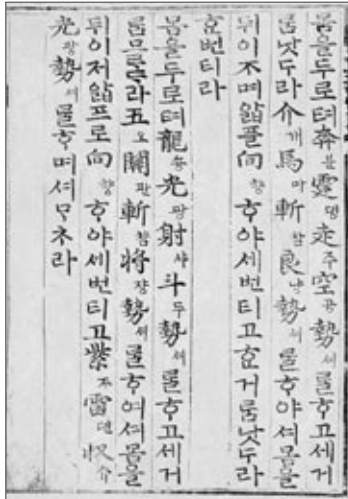
몸을도로터霜상鶻골奮분拳권勢셔를 하고세거름므르드라
 五오關관斬참將장勢셔를 하고몸을뒤어저앞프로向향하여
 세번티고또몸을뒤이저뒤호로向향하여한번티라



를 잡아 맹호장조세(猛虎張爪勢)를 하고, 세 걸음 물러 지조염
 익세(鷺鳥歛翼勢)를 하라.

몸을 돌려 분정주공세(奔霆走空勢)를 하고, 세 걸음 나아가
 월야참선세(月夜斬蟬勢)를 하여서 몸을 뒤지며 세 번 쳐라.

몸을 돌려 상골분권세(霜鶻奮拳勢)를 하고, 세 걸음 물렀다
 가 오관참장세(五關斬將勢)를 하고, 몸을 뒤져 앞으로 향하여
 세 번 치고, 또 몸을 뒤져 뒤로 향하여 한 번 쳐라.



몸을 두로터 쫓 분 번 走 주 공 勢 서 돌 호 고 세 거 림 닷 ㄷ 라 介 馬 마 斬 良 勢 서 돌 호 여 서 몸 을 뒤 이 지 며 앞 플 向 향 하 야 세 번 티 고 혼 거 림 닷 ㄷ 라 혼 번 티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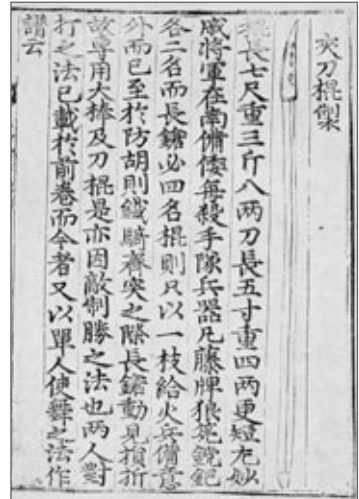
몸을 두로터 용 광 사 두 龍 光 射 斗 勢 서 돌 호 고 세 거 림 르 ㄷ 라 五 오 關 斬 將 將 勢 서 돌 호 여 서 몸 을 뒤 이 지 프 로 向 향 하 야 세 번 티 고 紫 電 收 光 勢 서 돌 호 며 서 ㄷ ㄷ ㄷ ㄷ 라

몸을 돌려 분정주공세를 하고, 세 걸음 나아가 개마참량세 (介馬斬良勢)를 하여서 몸을 뒤지며 앞을 향하여 세 번 치고, 한 걸음 나아가 한번 쳐라.

몸을 돌려 용광사두세(龍光射斗勢)를 하고, 세 걸음 물러나 오관참장세를 하여서 몸을 뒤져 앞으로 향하여 세 번 치고, 자전수광세(紫電收光勢)를 하면서 마쳐라.

夾刀棍製

棍長七尺，重三斤八兩。刀長五寸，重四兩，更短尤妙。威將軍在南備倭，每殺手隊兵器，凡藤牌 狼筈 鏡鈚各二名，而長鎗必四名，棍則只以一枝給火兵，備意外而已。至於防胡，則鐵騎齊突之際，長鎗動見損折，故專用大棒及刀棍，是亦因敵制勝之法也。兩人對打之法，已載於前卷，而今者，又以單人使舞之法，作譜云。



협도곤의 모양과 만듦

곤(棍)의 길이는 7자이고 무게는 3근 8냥이다. 칼의 길이는 5치이고 무게는 4냥인데, 더 짧으면 더욱 묘하다. 척장군(威將軍)¹⁰⁾이 남쪽에 있으면서 왜(倭)를 방비할 때, 살수대(殺手隊)마다 병기로 무릇 등패(藤牌)·낭선(筥筩)·당과(鏡鈚)는 각 두 명씩으로 하고, 장창(長鎗)은 반드시 네 명으로 하고, 곤(棍)은 다만 하나를 화병(火兵)¹¹⁾에게 주어 뜻밖의 일에 대비토록 할 뿐이었다. 호(胡)를 방어할 때에는, 철기(鐵騎)¹²⁾가 일제히 돌격해 올 때 장창을 움직이면 손절(損折)을 당하기 때문에 오로지 대봉(大棒)과 도곤(刀棍)¹³⁾을 사용했는데, 이것 또한 적에 따라 (방법을 맞추어) 제압하여 이기는 법이다. 두 사람이 대타(對打)하는 법은 이미 전권(前卷)에 실려 있으므로, 지금 다시 한 사람이 단련하는[舞] 법으로 보(譜)를 만들었다.

- 10) 척장군(威將軍) : 척계광 장군. 인물색인 참조
- 11) 취사병. 무비지 92권 참조.
- 12) 철기(鐵騎) : 철갑(鐵甲)으로 무장하고 말을 타던 군사.
- 13) 협도곤을 말한다.

棍은 기뢰닐곱자히오므그서斤근여덟兩양이오칼기러다섯
 치오므그녁兩양이니다시다르게 하여사더옥妙묘하니라
 威척將將軍군이남남의이서예마글제는每미殺살手수의隊
 더마다兵兵器기를물윗藤등牌패과笰냥箄선과鏡當鉞패를各
 각두名명씩하고長당鎗창을반드시네씩쓰되棍은다만
 한날츠로火火兵병을주어意의外외에이러니출썩니러니오랑
 깨막기에다드라는鐵鐵鎗甲갑잡넙고물튼놈들히함써다틸제
 長당鎗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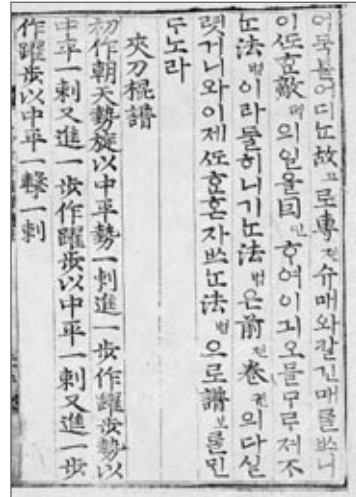
棍은 기뢰닐곱자히오므그서斤근여덟兩양이오
 칼기러다섯치오므그녁兩양이니다시다르게 하
 여사더옥妙묘하니라 威척將將軍군이남남의이
 서예마글제는每미殺살手수의隊 더마다兵兵器
 기를물윗藤등牌패과笰냥箄선과鏡當鉞패를各
 각두名명씩하고長당鎗창을반드시네씩쓰되棍
 은다만한날츠로火火兵병을주어意의外외에이
 러니출썩니러니오랑 깨막기에다드라는鐵鐵鎗
 甲갑잡넙고물튼놈들히함써다틸제 長당鎗창이

棍 길이가 일곱 자요, 무게 세근 여덟 냥이요, 칼 길이가 다섯 치
 요, 무게 녁 냥이니, 다시 다르게 하여서 더욱 묘하니라. 척장
 군(威將軍)이 남에 있어 예[왜(倭)] 막을 때는 매 살수(殺手)의
 대(隊) 마다 병기를 무릇 등패(藤牌)·냥선(笰箄)·당과(鏡鉞)
 를 각 두 명씩 하고, 장창(長鎗)을 반드시 넷씩 쓰되, 곤(棍)은
 다만 한 날츠로 화병(火兵)을 주어 의외에 일을 갓출 뿐이러니,
 오랑깨 막기에 있어서는 철갑 입고 말 탄 놚들이 함께 닥칠 때
 장창이

어둑블어디는故고로專전수매와칼긴매를쓰니이또흔敵덕의일을인하어이그을말마르저는法법이라둘히니기는法법은前前卷권의다실렸거니와이제또흔 혼자쓰는法법으로譜보를만드노라

夾刀棍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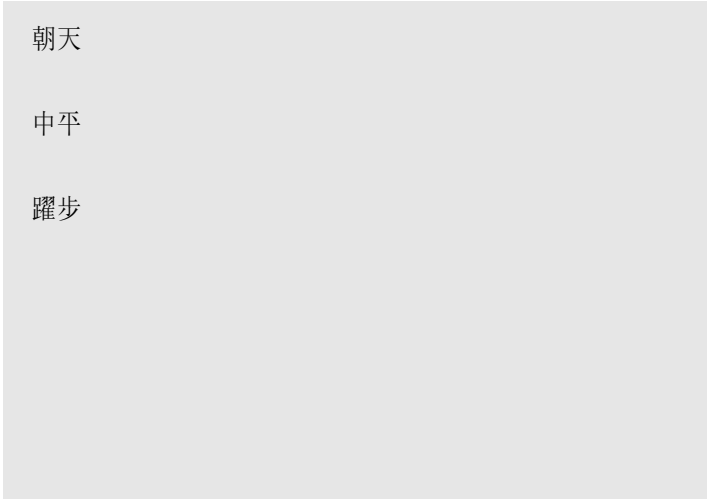
初作朝天勢旋以中平勢一刺，進一步作躍步勢以中平一刺，又進一步作躍步以中平一刺，又進一步作躍步以中平一擊一刺。



어둑 부러지는 고로 전(專) 수매와 칼 긴매를 쓰니, 이 또한 적의 일을 인하여 이감을 말아져 자는 법이라. 둘이 익히는 법은 전권(前卷)에 다 실렸거니와 이제 또한 혼자 쓰는 법으로 보(譜)를 만드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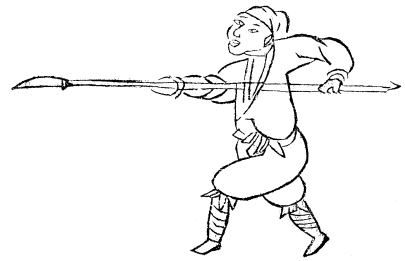
협도곤을 쓰는(연마하는) 계보

처음에 조천세(朝天勢)를 하고, 즉시 중평세(中平勢)로 하여 한 번 찌르고, 한 걸음 나아가 약보세(躍步勢)를 하여 중평세로 한 번 찌르고, 또 한 걸음 나아가 약보세를 하여 중평세로 한 번 찌르고, 또 한 걸음 나아가 약보세를 하여 중평세로 한 번 치고 한 번 찢러라.



조천

중평



약보



進一步作躍步勢旋作倒鎗勢，仍作架上勢以中平一刺，又進
 二步作躍步倒鎗架上以中平一擊一刺。

倒鎗

架上



한 걸음 나아가 약보세를 하고 즉시 도창세(倒鎗勢)를 하고,
 그대로 가상세(架上勢)를 하여 중평세로 한 번 찌르고, 또 두
 걸음 나아가 약보세 · 도창세 · 가상세를 하여 중평세로 한 번
 치고 한 번 찌러라.

도창



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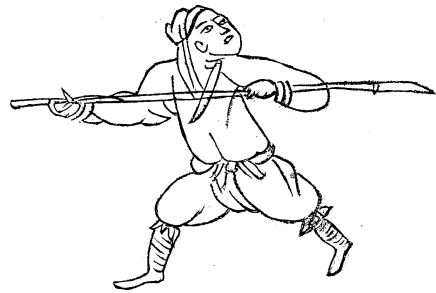
退一步作反鎗勢，仍退二步以琵琶勢一擊一刺。

反鎗

琵琶

한 걸음 물러나 반창세(反鎗勢)를 하고, 그대로 두 걸음 물러나 비파세(琵琶勢)로 한 번 치고 한 번 찌러라.

반창



비파



退一步作反鎗，仍退二步以琵琶一擊一刺，仍作寒江叉魚勢，轉作仙翁採藥勢，回身作闖鴻門勢畢。

寒江叉魚

仙翁採藥



한 걸음 물러나 반창세를 하고, 그대로 두 걸음 물러나 비파세로 한 번 치고 한 번 찌르고, 그대로 한강차어세(寒江叉魚勢)를 하고 몸을 움겨 선옹채약세(仙翁採藥勢)를 하고 몸을 돌려 틈홍문세(闖鴻門勢)를 하여 마쳐라.

한강차어

선옹채약





關鴻門

棼鴻門



夾刀棍總圖

進 → 朝天中平 → 躍步中平 → 躍步中平 → 躍步中平
 退 → 反鎗 → 反鎗 → 反鎗 → 琵琶
 進 → 躍步倒鎗勢架上勢中平 → 躍步倒鎗架上中平 →
 退 → 反鎗 → 反鎗 → 反鎗 → 琵琶寒江叉魚勢仙翁採藥
 → 闖鴻門【畢】



협도근총도

진(進) → 조천중평(朝天中平) → 약보중평(躍步中平) → 약
 보중평(躍步中平) → 약보중평(躍步中平)
 퇴(退) → 반창(反鎗) → 반창(反鎗) → 반창(反鎗) → 비과
 (琵琶)
 진(進) → 약보도창세가상세중평(躍步倒鎗勢架上勢中平) →
 약보도창가상중평(躍步倒鎗架上中平) →
 퇴(退) → 반창(反鎗) → 반창(反鎗) → 반창(反鎗) → 비과한
 강차어세선옹채약(琵琶寒江叉魚勢仙翁採藥) → 틈홍문필(闖
 鴻門)【필(畢)】



鉤鎗圖

長八尺五寸, 重三斤.

用法與夾刀棍同

구창도

길이는 8자 5치이고, 무게는 3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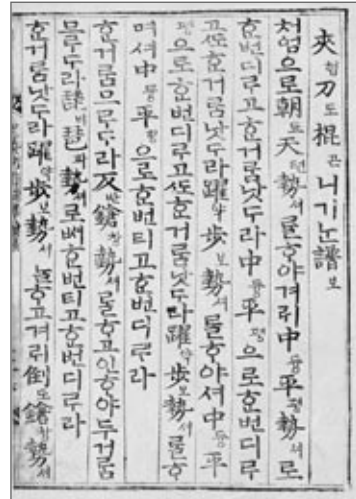
사용하는 법은 협도곤과 같다.

夾협刀도棍곤니기는譜보

처엄으로朝天勢^{초천세}를 하여겨레中^중平^평勢^세서로 한번 디
르고 한 걸음 낫다라中^중平^평勢^세서로 한번 디르고 또 한 걸음 낫
다라躍^약步^보勢^세를 하여서中^중平^평勢^세서로 한번 디르고 또 한
걸음 낫다라躍^약步^보勢^세를 하여서中^중平^평勢^세서로 한번 디고
한번 디르라

한 걸음 무르다라反^반鎗^창勢^세를 하고 인하여 두 걸음 무
라琵琶^{비파}勢^세로써 한번 디고 한번 디르라

한 걸음 낫다라躍^약步^보勢^세를 하고겨레倒^도鎗^창勢^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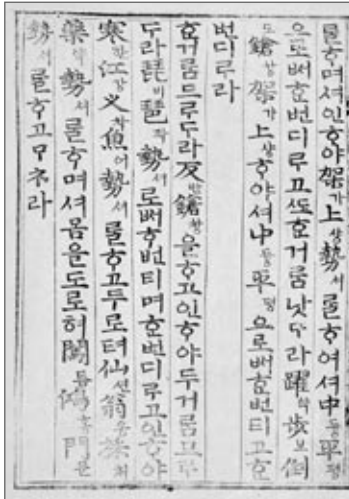


협도곤(夾刀棍) 익히는 보(譜)

처음으로 조천세(朝天勢)를 하여 겨레 중평세(中平勢)로 한
번 지르고, 한 걸음 나아가 중평으로 한 번 지르고, 또 한 걸음
나아가 약보세(躍步勢)를 하여서 중평으로 한 번 지르고, 또
한 걸음 나아가 약보세를 하면서 중평으로 한 번 치고 한 번 지
르라.

한 걸음 물러나 반창세(反鎗勢)를 하고, 인하여 두 걸음 물
러나 비파세(琵琶勢)로써 한 번 치고 한 번 지르라.

한 걸음 나아가 약보세를 하고 겨레 도창세(倒鎗勢)



들^{중평}하며서인^상하^상架^상가^상상^상勢^상서^상를^상 하^상여^상서^상中^중등^평平^평평^평으로^중써^평흔^평
 번^중디^평르^평고^평또^평하^중거^중름^평나^중트^평다^중라^중躍^중약^중步^중보^중倒^중도^중鎗^중창^중架^중가^중상^중하^중야^중
 서^중中^중등^중平^중평^중으로^중써^중흔^중번^중티^중고^중하^중번^중디^중르^중라
 하^중거^중름^중므^중르^중다^중反^중반^중鎗^중창^중을^중 하^중고^중인^중하^중야^중두^중거^중름^중므^중르^중다^중
 毳^중비^중毳^중과^중勢^중서^중로^중써^중흔^중번^중티^중며^중하^중번^중디^중르^중고^중인^중하^중야^중寒^중한^중江^중강^중叉^중
 차^중魚^중어^중勢^중서^중를^중 하^중고^중두^중로^중터^중仙^중선^중翁^중옹^중採^중채^중藥^중약^중勢^중서^중를^중 하^중며^중서^중
 門^중을^중도^중로^중혀^중闖^중툼^중鴻^중홍^중門^중문^중勢^중서^중를^중 하^중고^중마^중쳐^중라

를 하면서 인하여 가상세(架上勢)를 하여 중평으로써 한번 지
 르고, 또 한 걸음 나아가 약보·도창·가상 하여서 중평으로써
 한번 치고 한번 지르라.

한 걸음으로 물러나 반창을 하고, 인하여 두 걸음으로 물러
 나 비파세로써 한 번 치며 한 번 지르고, 인하여 한강차어세(寒
 江叉魚勢)를 하고 두로쳐 선옹채약세(仙翁採藥勢)를 하면서
 몸을 돌려 틈홍문세(闖鴻門勢)를 하고 마쳐라.

倭劍譜【凡擊賊時，必舉落疾速，以防本身.】.

兩人對立迳進，皆以進前殺賊勢，又劍相當至于二次.

進前殺賊



왜검보【무릇 적을 칠 때는, 반드시 들고 내리는 것을 빨리하여 본신(本身)을 방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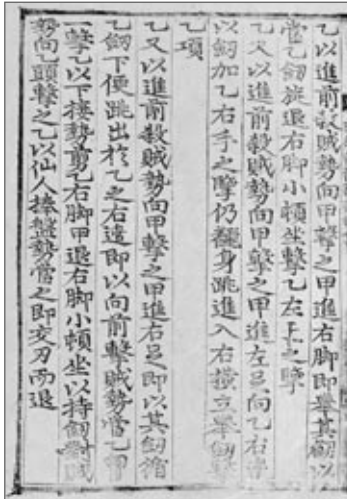
두 사람이 맞서서 빨리 앞으로 나아가 모두 진전살적세(進前殺賊勢)¹⁴⁾를 하고 또 칼을 서로 두차례 부딪쳐라.

진전살적



14) 진전살적세(進前殺賊勢) : 앞으로 나아가 적을 공격해서 죽이는 자세.

※살(殺) : 곤(棍), 창(槍) 등에서는 찌름, 도(刀) 등에서는 뺨/격(擊)/내려침, 검(劍)에서는 찌름 혹은 뺨의 의미로 쓴다.



15) 을(乙)은 갑(甲)의 오자.

乙以進前殺賊勢向甲擊之，甲進右腳卽舉其劍以當乙劍，旋退右腳小頓坐擊乙左手之擊。
 乙又以進前殺賊勢向甲擊之，甲進左足向乙右邊以劍加乙右手之擊，仍翻身跳進入右橫立舉劍擊乙項。
 乙又以進前殺賊勢向甲擊之，甲進右足卽以其劍循乙劍下，便跳出於乙之右邊，卽以向前擊賊勢當乙胸一擊，乙以下接勢剪乙¹⁵⁾右腳，甲退右腳小頓坐以持劍對賊勢向乙頭擊之，乙以仙人捧盤勢當之，卽交刃而退。

을이 진전살적세로 갑을 향해 치거든, 갑은 오른 다리를 나오며 즉시 칼을 들어 을의 칼을 막고, 바로 오른 다리를 물리며 조금 구부려 앉아 을의 왼 손목을 쳐라.

을이 또 진전살적세로 갑을 향해 치거든, 갑은 왼발을 나오며 을의 우변을 향하며 칼을 을의 오른 손목에 가하고, 그대로 몸을 뒤집어 뛰며 나아가 오른쪽으로 들어 비껴 서서 칼을 들어 을의 목을 쳐라.

을이 또 진전살적세로 갑을 향해 치거든, 갑은 오른발을 나오며 바로 칼로서 을의 칼 아래를 스치며 곧 을의 우변으로 뛰어 나아가 즉시 향전격적세(向前擊賊勢)로 을의 가슴을 한 번 치고, 을이 하접세(下接勢)로 갑의 오른 다리를 베거든, 갑이 오른 다리를 뒤로 하며 조금 구부려 앉아 지검대적세(持劍對賊勢)로 을의 머리를 향해 치고 을은 선인봉반세(仙人捧盤勢)로 써 막으며, 바로 칼날을 교차하고[交刃] 물러나라.

下接

向前擊賊

仙人捧盤

持劍對賊



향전격적



하접



지검대적



선인봉반





皆以齊眉殺勢各進一步，轉為龍拏虎攫勢，相向直視，又進一步舉劍向甲左擊之，甲即舉劍進左足向乙右轉以右足入乙兩脚翻身，立定擊乙兩手之擊。

齊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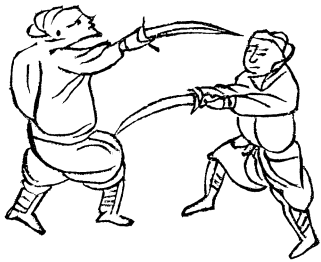
龍拏虎攫

모두 제미살세(齊眉殺勢)로 각각 한 걸음 나아가 옮겨서 용나호확세(龍拏虎攫勢)로 하고 서로 향해 바로 보고 또 한 걸음 나아가라. (을이) 칼을 들어 갑의 왼쪽으로 향해 치거든 갑은 즉시 칼을 들어 왼발을 나오며 을의 오른쪽으로 향해 옮겨 오른발로서 을의 양 다리에 놓으며 몸을 뒤집어 바로 서서 을의 양 손목을 쳐라.

제미



용나호확



兩人各進一步皆作左防賊勢，又各進一步皆作右防賊勢，俱以進前殺賊勢又劍相當至于三次，乙以進前殺賊勢向甲擊之，甲以滴水勢當之，仍入乙左邊以向上防賊勢翦乙左臂，乙用右手舉劍將擊甲之左臂，甲即以進前殺賊勢向下翦乙右臂，皆以初退防賊勢各還原地。

左防賊

右防賊



두 사람이 각각 한 걸음 나아가 모두 좌방적세(左防賊勢)를 하고, 또 각각 한 걸음 나아가 우방적세(右防賊勢)를 하고, 모두 진전살적세로서 또 칼을 서로 부딪치기를 세 차례 하고, 을이 진전살적세로 갑을 향해 치거든, 갑이 적수세(滴水勢)로 막고, 그대로 을의 좌변으로 들어가 향상방적세(向上防賊勢)로 을의 왼팔을 자르고 을이 오른손을 사용하여 칼을 들어 장차 갑의 왼팔을 치려거든, 갑은 즉시 진전살적세로 아래를 향해 을의 오른팔을 자르고, 모두 초퇴방적세(初退防賊勢)로 각각 제자리로 돌아가라.

좌방적



우방적





滴水
 進前殺賊
 向上防賊
 初退防賊

진전살적

적수



초퇴방적

향상방적



兩人皆作齊眉勢飛趨而進，乙以進前殺賊勢向甲擊之，甲以滴水勢當乙劍，卽皆轉身相向虎視，甲卽以持劍對賊勢向乙頭擊之，乙以仙人捧盤勢當之，甲疾入乙右腋以向上防賊勢翦乙右臂，乙用左手舉劍將擊甲之右臂，甲以進前殺賊勢擊乙之左臂，皆以初退防賊勢各還原地。

兩人皆以撫劍伺賊勢相望迤邐，而來作猝然相值之狀，一時抽劍俱以進前殺賊勢急呼以當之，各退一步乙睨劍右廻甲睨乙左廻，乙以下接勢擊甲左腳，

兩人皆作齊眉勢飛趨而進乙以進前殺賊勢向甲擊之甲以滴水勢當乙劍卽皆轉身相向虎視甲卽以持劍對賊勢向乙頭擊之乙以仙人捧盤勢當之甲疾入乙之右腋以向上防賊勢翦乙右臂乙用左手舉劍將擊甲之右臂甲以進前殺賊勢擊乙之左臂皆以初退防賊勢各還原地
兩人皆以撫劍伺賊勢相望迤邐而來作猝然相值之狀一時抽劍俱以進前殺賊勢急呼以當之各退一步乙睨劍右廻甲睨乙左廻乙以下接勢擊甲左

두 사람이 모두 재미세를 하고 날아가듯이 달려가서, 을이 진전살적세로 갑을 향해 치거든, 갑이 적수세로 을의 칼을 막고, 즉시 모두 몸을 옮겨 서로 노려보고[虎視], 갑이 즉시 지검대적세로 을의 머리를 향해 치거든 을이 선인봉반세로 막고, 갑이 빨리 을의 오른쪽 겨드랑이로 들어가 향상방적세로 을의 오른팔을 자르고, 을이 왼손으로 칼을 들어 장차 갑의 오른팔을 치거든, 갑이 진전살적세로 을의 왼팔을 치고, 모두 초퇴방적세로 각각 제자리로 돌아가라.

두 사람이 모두 무검사적세(撫劍伺賊勢)로 서로 바라보기를 계속하며 오다가, 갑자기 만난 형상을 하여 일시에 칼을 빼어 모두 진전살적세로 급히 소리치며 막고, 각각 한걸음씩 물러나 을은 갑을 흘끗 보며 오른쪽으로 돌고 갑은 을을 흘끗 보며 왼쪽으로 돌아, 을이 하접세로 갑의 왼쪽 다리를 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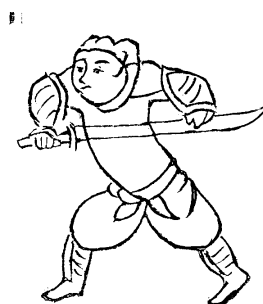


甲以左防賊勢當之，旋以下接勢擊乙右脚，乙又以右防賊勢當之，甲即以持劍對賊勢向乙頭擊之，乙以仙人捧盤勢當之，旋以持劍對賊勢向甲頭擊之，甲即迫前拘乙兩手使其手中之劍不得加於我身，旋以其劍入乙兩手之間用銅護逼乙之左手掌後，以其劍刀夾乙右手以奪乙劍，皆以初退防賊勢各還原地。

撫劍伺賊

갑이 좌방적세로 막고 즉시 하접세로 을의 오른쪽 다리를 치고, 을이 또 우방적세로 막으면 갑이 바로 지검대적세로 을의 머리를 향해 치고, 을이 선인봉반세로 막고 바로 지검대적세로 갑의 머리를 향해 치면, 갑이 즉시 앞으로 박두하여 을의 두 손을 잡아서 수중(手中)의 칼로 하여금 나의 몸에 미치지 못하게 하고, 바로 그 칼을 을의 두 손 사이에 들이밀어 동호(銅護)를 사용하여 을의 왼 손등 뒤를 누르고, 칼날을 을의 오른손에 끼여 을의 칼을 빼앗고, 모두 초퇴방적세로 제자리로 돌아가라.

무검사적



撫劍伺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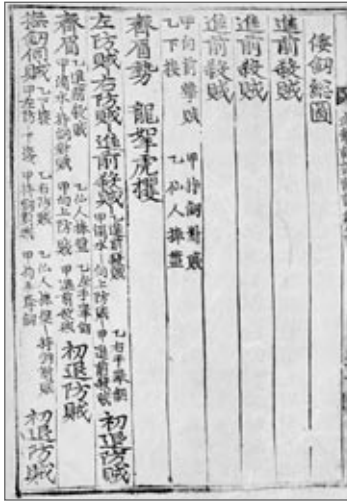
兩人又以齊眉勢飛趨而進，乙以持劍對賊勢向甲頭擊之，甲入乙右腋以向上防賊勢翦乙右臂而出，卽以右防賊勢從後擊乙腰畢。



무검사적



두 사람이 또 재미세로 날아가듯이 달려 나아가, 을이 지검 대적세로 갑의 머리를 향해 치고, 갑이 을의 오른쪽 겨드랑이로 들어가 항상방적세로 을의 오른쪽 팔을 베고 나와서, 즉시 우방적세로 뒤에서 을의 허리를 치고 마쳐라.



倭劍總圖
 進前殺賊
 進前殺賊
 進前殺賊
 【甲向前擊賊 乙下接 甲持劍對賊 乙仙人捧盤】
 齊眉勢 龍拏虎攫
 左防賊→右防賊→進前殺賊→【乙進前殺賊 甲滴水→向上防賊 乙右手舉劍 甲進前殺賊】初退防賊
 齊眉【乙進前殺賊 甲滴水→持劍對賊 乙仙人捧盤 甲向上防賊 乙左手舉劍 甲進前殺賊】初退防賊
 撫劍伺賊【乙下接 甲左防→下接 乙右防賊 甲持劍對賊 乙仙人捧盤→持劍對賊 甲抱手奪劍】初退防賊

왜검총도

진전살적

진전살적

진전살적

【갑 향전격적(甲向前擊賊) 을 하접(乙下接) 갑 지검대적(甲持劍對賊) 을 선인봉반(乙仙人捧盤)】

제미세(齊眉勢) 용나호화(龍拏虎攫)

좌방적(左防賊)→우방적(右防賊)→진전살적(進前殺賊)→
 【을 진전살적(乙進前殺賊) 갑 적수(甲滴水)→향상방적(向上防賊) 을 우수거검(乙右手舉劍) 갑 진전살적(甲進前殺賊)】초퇴방적(初退防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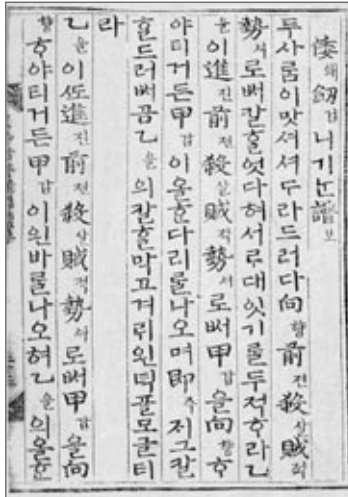
제미(齊眉)【을 진전살적(乙進前殺賊) 갑 적수(甲滴水)→지검대적(持劍對賊) 을 선인봉반(乙仙人捧盤) 갑 향상방적(甲向上防賊) 을 좌수거검(乙左手舉劍) 갑 진전살적(甲進前殺賊)】초퇴방적(初退防賊)

무검사적(撫劍伺賊)【을 하접(乙下接) 갑 좌방(甲左防)→하접(下接) 을 우방적(乙右防賊) 갑 지검대적(甲持劍對賊) 을 선인봉반(乙仙人捧盤)→지검대적(持劍對賊) 갑 포수탈검(甲抱手奪劍)】초퇴방적(初退防賊)

齊眉【乙持劍對賊 甲向上防賊→右防賊, 畢】



제미(齊眉)【을 지검대적(乙持劍對賊) 갑 향상방적(甲向上防賊)→우방적(右防賊), 필(畢)】



倭劔검니기보
 두사람이 맞서서 두라드러다 向 前 전 殺 살 賊 적 勢 서 로 써 칼
 흘 었 다 허 서 러 대 잇 기 를 두 적 하 라 乙 을 이 進 進 前 전 殺 살 賊 적
 勢 서 로 써 甲 갑 을 向 向 향 하 야 티 거 든 甲 갑 이 을 흘 다 리 를 나 오 며
 卽 즉 지 그 칼 흘 드 러 써 곱 乙 을 의 칼 흘 막 고 겨 러 왼 녀 폴 모 글
 티 라
 乙 을 이 또 進 進 前 전 殺 살 賊 적 勢 서 로 써 甲 갑 을 向 向 향 하 야 티 거
 든 甲 갑 이 왼 바 를 나 오 혀 乙 을 의 을 흘

왜검(倭劔) 익히는 보(譜)

두 사람이 맞서서 달려들어 다 향전살적세(向前殺賊勢)로써 칼을 엿대여서 서로 대 잇기를 두 적하라. 을이 진전살적세로써 갑을 향하여 치거든 갑이 오른다리를 나오며 즉시 그 칼을 들어서 을의 칼을 막고 겨레 왼쪽 팔목을 쳐라.

을이 또 진전살적세로써 갑을 향하여 치거든 갑이 왼발을 나오며 을의 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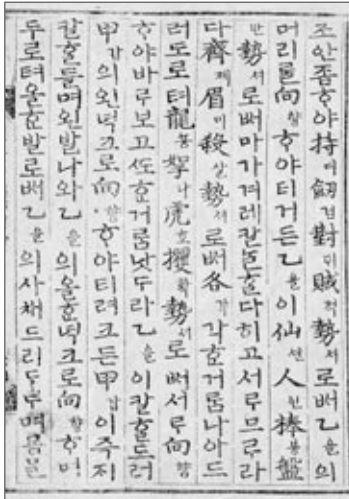
덕^乙로^向향^하며 칼로^써 을^의 오른^손목^에 대고 인^하여 몸^을 뒤^터뛰^어 나^아 을^의 왼^쪽으로 들어^서 칼^을 들어 을^의 손^목을 쳐라

乙^을이 進^진전 前^전前 殺^살살 賊^적賊 勢^세勢 서로 써 甲^갑갑 을 向^향향 하^여 티 거 든 甲^갑갑 이 을^의 왼^발을 나 오^며 그 칼로^써 을^의 칼^아래^를 스치^며 티 거^고 을^의 왼^쪽으로 뛰^어 나^며 卽^즉즉 지 向^향前^전前 擊^격격 賊^적賊 勢^세勢 서로 써 乙^을을 의 가^슴을 을^이 下^하하 接^접접 勢^세勢 서로 써 甲^갑갑 의 을^의 왼^{다리}를 7 리^기티 거^고 든 甲^갑갑 이 을^의 왼^{다리}를 물^리치^며



쪽으로 향하며 칼로써 을의 오른 손목에 대고, 인하여 몸을 뒤쳐 뛰어 나아 오른쪽으로 들어 빗기 서서 칼을 들어 을의 손목을 쳐라.

을이 진전살적세로써 갑을 향하여 치거든 갑이 오른발을 나오며 그 칼로써 을의 칼 아래를 스치며 곧 을의 오른쪽으로 뛰어나며 즉시 향전격적세(向前擊賊勢)로써 을의 가슴을, 을이 하접세(下接勢)로써 갑의 왼다리를 가리치거든, 갑이 왼다리를 물리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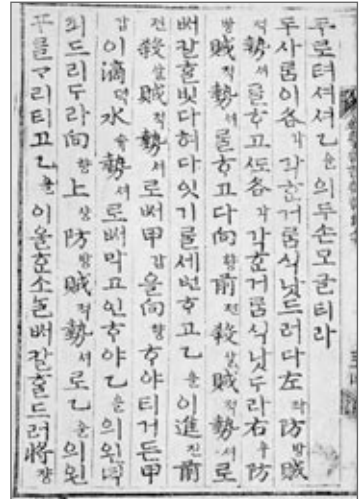


조안좁음하야持디劍검對디賊적勢서로써乙을의머리를向향
 하야티거든乙을이仙선人인捧봉盤반勢서로써마가겨레칼
 날홀다히고서르므르라다齊제眉미殺살勢서로써各各한
 걸음나아드리도로터龍룡拏나虎호攬확勢서로써서르向향
 하야바라보고또한걸음나이다라乙을이칼홀드러甲갑의왼
 녘크로向향하야티려크든甲갑이즉시칼홀들며왼발나와
 乙을의오른녘크로向향하며두로터올흔발로써乙을의사채
 드리드르며몸을

조금 앓음하여 지검대적세(持劍對賊勢)로써 을의 머리를 향
 하여 치거든 을이 선인봉반세(仙人捧盤勢)로써 막아 겨레 칼날
 을 대고 서로 물러나라. 모두 재미살세(齊眉殺勢)로써 각각 한
 걸음 나아가 다시 쳐 용나호확세(龍拏虎攬勢)로써 서로 향하여
 바라보고 또 한 걸음 나아가라. 을이 칼을 들어 갑의 왼쪽으로
 향하여 치려하거든 갑이 즉시 칼을 들며 왼발 나와 을의 오른
 쪽으로 향하며 돌려 오른발로써 을의 사채들이 다르며 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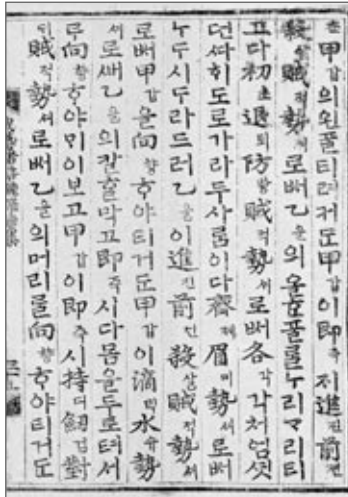
두로터서서乙을의두손모글티라

두사람이 각각 한 걸음씩 나아가 모두 좌방적세(左防賊勢)를 하고 또 각각 한 걸음씩 나아가 우방적세(右防賊勢)를 하고 모두 향전살적세로써 칼을 빗대어 대 잇기를 세 번하고, 을이 진전살적세로써 갑을 향하여 치거든 갑이 적수세(滴水勢)로써 막고 인하여 을의 왼쪽에 들이달아 향상방적세(向上防賊勢)로 을의 왼팔을 가리치고 을이 오른손을 써 칼을 들어 장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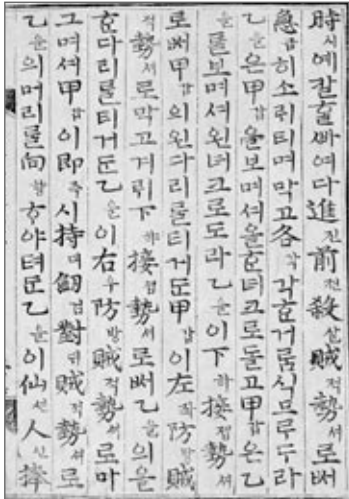
둘러 서서 을의 두 손목을 치라.

두 사람이 각각 한 걸음 나아가 모두 좌방적세(左防賊勢)를 하고 또 각각 한 걸음씩 나아가 우방적세(右防賊勢)를 하고 모두 향전살적세로써 칼을 빗대어 대 잇기를 세 번하고, 을이 진전살적세로써 갑을 향하여 치거든 갑이 적수세(滴水勢)로써 막고 인하여 을의 왼쪽에 들이달아 향상방적세(向上防賊勢)로 을의 왼팔을 가리치고 을이 오른손을 써 칼을 들어 장차



甲갑의왼팔티러커든 甲갑이 卽즉지 進진前前 殺살賊賊 勢勢 서
 로써 乙을의을 혼 폴톨 느리 7 리티고다 初초 退퇴 防방 賊賊 勢勢
 서로써 各各 各各 처 업섯던 丈丈 히도로 가라 두 사람 이 다 齊제 眉미
 勢勢 서로써 乙을 느시 두라 드러 乙을 이 進진前前 殺살 賊賊 勢勢 서로
 써 甲갑을 向향 하야 티거든 甲갑이 滴덕 水슈 勢勢 서로써 乙을의
 칼 扞막고 卽즉시 다 몸을 두로 터서 卽卽 向향 하야 미이 보고 甲갑
 이 卽즉시 持디 劔검 對디 賊賊 勢勢 서로써 乙을의 머리 卽卽 向향
 하야 티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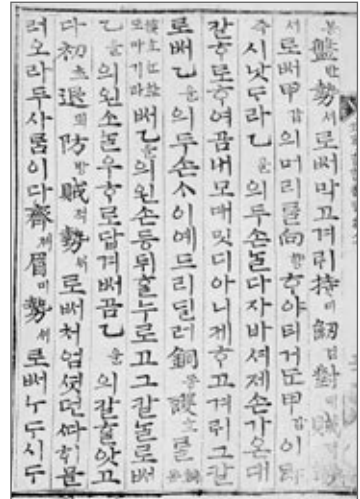
갑의 왼팔을 치러하거든 갑이 즉시 진전살적세로써 을의 오
 른팔을 날아 가리치고 다 초퇴방적세(初退防賊勢)로써 각각 처
 음 섰던 땅에 도로 가라. 두 사람이 다 재미세로써 날듯이 달아
 들어 을이 진전살적세로써 갑을 향하여 치거든 갑이 적수세로
 써 을의 칼을 막고 즉시 모두 몸을 돌려 서로 향하여 마주보고
 갑이 즉시 지검대적세로써 을의 머리를 향하여 치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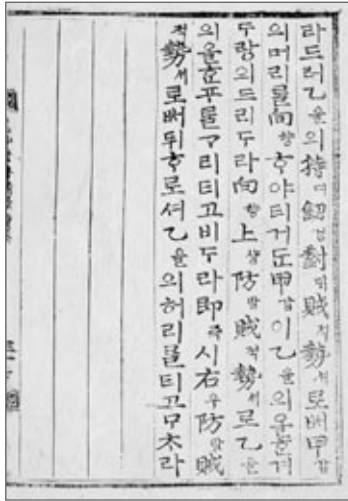
時시에 칼을 빼어 다 進진 전 殺살 적 세로써 급히 소리치며 막고 각각
 한 걸음씩 물러나라. 을은 갑을 흘끗 보면서 오른쪽으로 돌고
 갑은 을을 보면서 왼쪽으로 돌아 을이 하접세로써 갑의 왼다리
 를 치거든 갑이 좌방적세로 막고 겨레 하접세로써 을의 오른다
 리를 치거든 을이 우방적세로 막으면서 갑이 즉시 지검대적세
 로 을의 머리를 향하여 치거든 을이 선인봉

시에 칼을 빼어 다 진전살적세로써 급히 소리치며 막고 각각
 한걸음씩 물러나라. 을은 갑을 흘끗 보면서 오른쪽으로 돌고
 갑은 을을 보면서 왼쪽으로 돌아 을이 하접세로써 갑의 왼다리
 를 치거든 갑이 좌방적세로 막고 겨레 하접세로써 을의 오른다
 리를 치거든 을이 우방적세로 막으면서 갑이 즉시 지검대적세
 로 을의 머리를 향하여 치거든 을이 선인봉

盤반勢서로써막고겨리持디劔검對디賊적勢서로써甲갑의 머리를向향하야티거든甲갑이卽즉시낫드라乙을의두손늘 다자바셔제손가온대칼호로호여곰내모매밋디아니제하고겨리그칼로써乙을의두손스이에드리딜러銅동護호를 【銅동護호는한도மாக이라】써乙을의왼손등뒤홀누르고그칼늘로써乙을의왼손늘우호로당겨써곰乙을의칼홀앗고다 初초退퇴防방賊적勢서로써처엄섯던땅히물러오라두사람 이다齊제眉미勢서로써누드시도



반세로써 막고 겨레 지검대적세로써 갑의 머리를 향하여 치 거든 갑이 즉시 나아가 을의 두 손을 모두 잡아서 제 손 가운데 칼로 하여금 내 몸에 미치지 아니게 하고 겨레 그 칼로써 을의 두 손 사이에 들이 질러 동호(銅護)【동호란 한도막이라】를 써 을의 왼 손등 뒤를 누르고 그 칼날로써 을의 왼손을 위로 당겨서 을의 칼을 앗고 모두 초퇴방적세로써 처음 섰던 땅에 물러 오라. 두 사람이 모두 재미세로써 날듯이 달



라드러乙을의持디劍검對디賊적勢서로써甲갑의머리를向
 향하야티거든甲갑이乙을의을흔겨드랑의드리드라向향上
 상防방賊적勢서로乙을의을흔겨로써리티고비드라卽즉시
 右우防방賊적勢서로써뒤호로서乙을의허리를치고마쳐라

러들어 을의 지검대적세로써 갑의 머리를 향하여 치거든 갑이
 을의 오른 겨드랑이에 들이달아 향상방적세로 을의 오른팔을
 가리치고 비드라 즉시 우방적세로써 뒤로 을의 허리를 치고 마
 쳐라.

新書倭劍圖

第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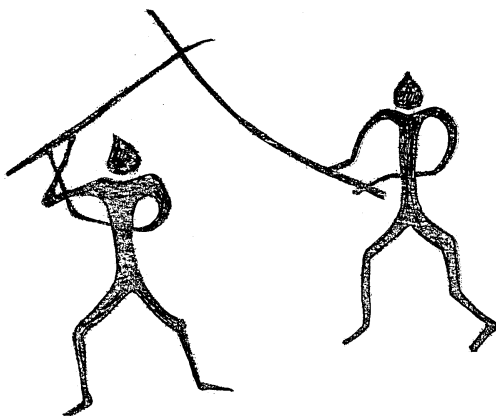
第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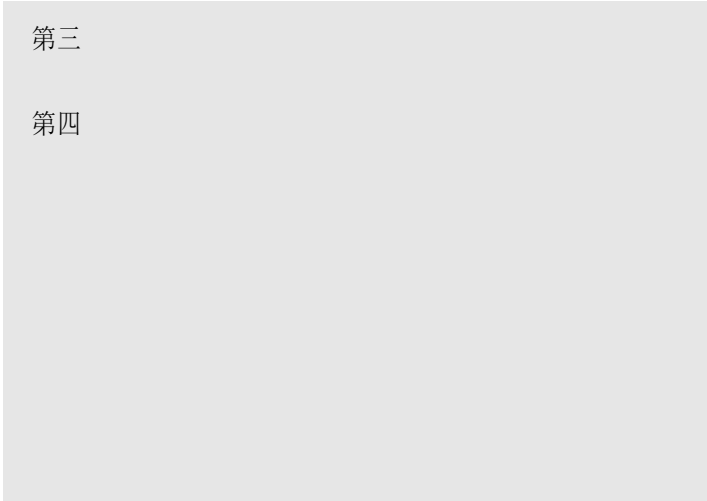


신서왜검도

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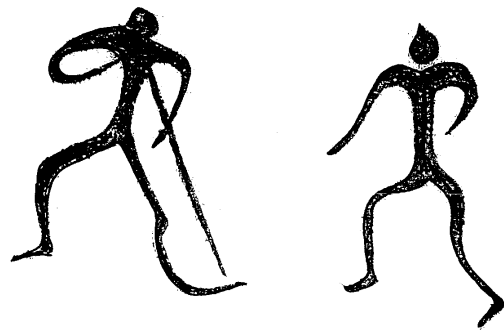
제일





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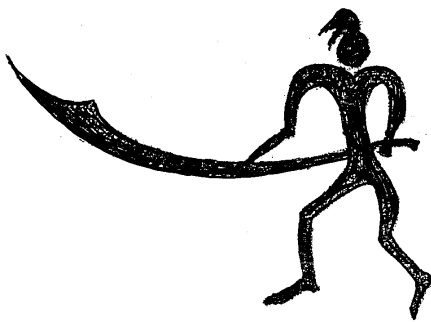
제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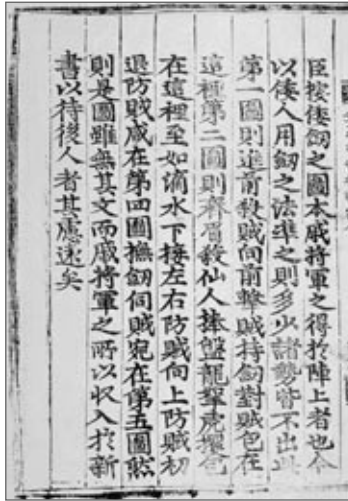


第五



제오





- 16) 척장군 : 척계광 장군을 말한다. 인물색인 참조
- 17) 기효신서의 저자인 척계광 장군을 말한다. 인물색인 참조
- 18) 《신서(新書)》 : 《기효신서》를 말한다.

臣按，倭劍之圖，本戚將軍之得於陣上者也。今以倭人用劍之法準之，則多少諸勢皆不出此。第一圖則進前殺賊，向前擊賊，持劍對賊，包在這裡，第二圖則齊眉殺，仙人捧盤，龍拏虎攫，包在這裡，至如滴水，下接，左右防賊，向上防賊，初退防賊，咸在第四圖，撫劍伺賊，宛在第五圖，然則是圖雖無其文，而戚將軍之所以收入於新書，以待後人者其慮遠矣。

신이 살피건대, 왜검의 그림[圖]는 본래 척장군¹⁶⁾이 진중에서 얻은 것입니다. 이제 왜인이 칼을 사용하는 법과 비교해 보면 많은 세들이 모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1도는 진전살적·향전격적·지검대적이 이 속에 포함되며, 제2도는 제미살·선인봉반·용나호확이 이 속에 포함되며, 적수세·하접세·좌우방적세·향상방적세·초퇴방적세 같은 자세는 모두 제4도에 들어갑니다. 무검사적세는 분명 제5도에 들어갑니다.

그러하니, 이 그림에 비록 글은 없지만, 척장군¹⁷⁾이 《신서(新書)》¹⁸⁾에 수록하여 후인을 기다린 것은 먼 훗날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日本國圖¹⁹⁾

界建福至南西



일본국도

①



19) 이 지도는 요즘의 지도와 달리, 위를 남쪽, 아래를 북쪽, 왼쪽을 동쪽, 오른쪽을 서쪽으로 놓고 보아야 한다. 일본고에서 각종 지명은 주(州)를 위주로 하여 나와 있는데, 보통 '주(州)' 자가 빠진 채 쓰여 있으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예 : 비전(肥前), 비후(肥後), 풍전(豊前), 풍후(豊後), 축전(筑前), 축후(筑後), 일향(日向), 대우(大隅), 살마(薩摩) - 지도상에는 모두 '주(州)' 자가 붙어 있다.]

일본고의 내용을 지도와 함께 보면, 지역간의 방향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지도상 표기된 지명과 일본고의 지명이 발음은 비슷한데 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보인다. 그 외에도, 지도에는 서북쪽으로는 조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일본고에는 북으로는 고려(高麗)라 하였으며, 일본이 신라, 백제의 동쪽에 있다는 표현이 나타나는 등의 차이점이 보인다.



大至南

月至北

②



琉球界

氏國界



③





界國女東至南東

界國人毛至北東

※ 지도 ④ ③ ② ①의 순으로 놓고
보아야 한다. 참고로 《주해도편》
에 실린 일본국도를 덧붙였다.
내용은 거의 같으나 동서남북의
방위가 바뀌어 있다.

④



日本國圖二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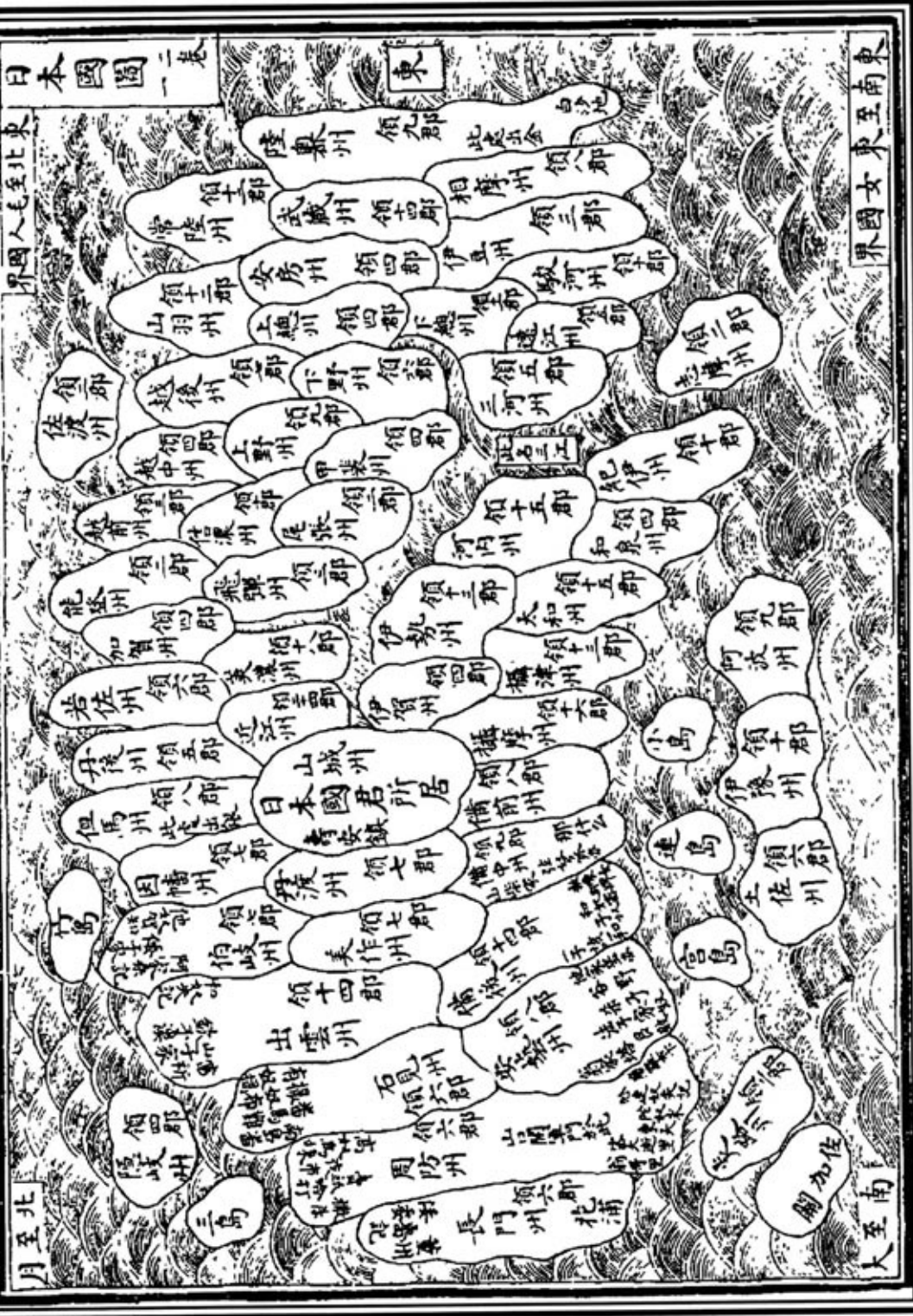
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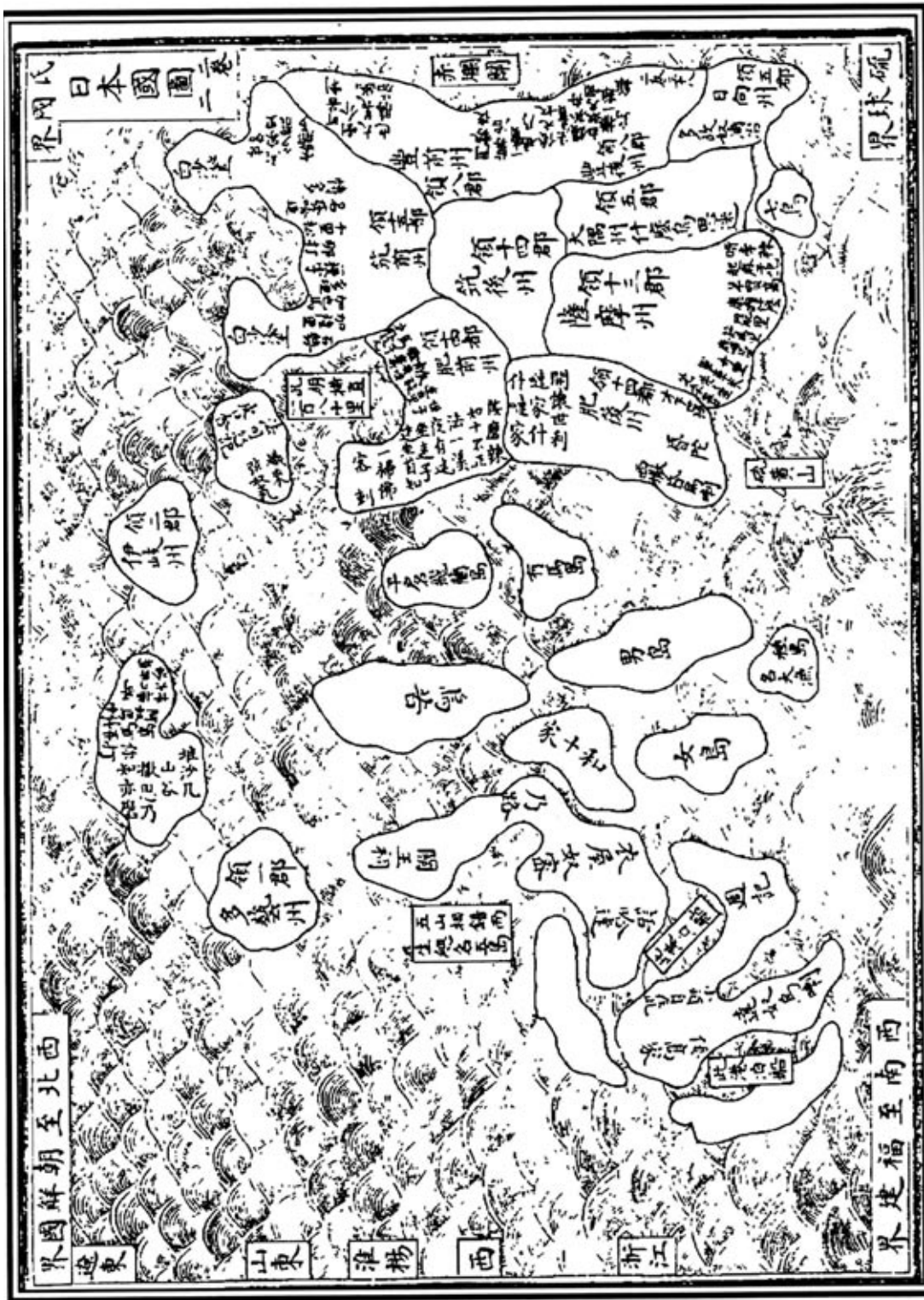
界國女東至南東

界國入毛至北東

月至北

大至南





【附】日本考

總督京營戎政少保兼太子太保臨淮侯 李言恭
協理京營戎政都察院右都御史兼兵部右侍郎郝杰 考梓

日本古倭奴國，依山島爲城邑，在百濟新羅東南。地形類琵琶，東高西下，東西數千里，南北數百里。九州居西爲首【肥前，肥後，豊前，豊後，筑前，筑後，日向，大隅，薩摩】，陸奥居東爲尾。【至山城早程七十五日，舊云陸奥爲頭，薩摩大隅爲尾，者非。】

山城居中，乃國都也。國君以王爲姓，以尊爲號，後改稱皇。初居日向筑紫宮，後徙山城，文武(僚史)²⁰⁾皆世，



【부】일본고²¹⁾

총독경영융정소보겸대자태보임회후²²⁾ 이언공
협리경영융정도찰원우도어사겸병부우시랑²³⁾ 학걸 고재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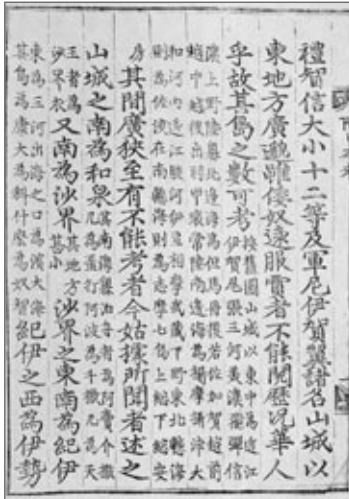
일본은 옛 왜노국(倭奴國)으로 산과 섬에 의하여 성읍을 이루었으니, 백제(百濟), 신라(新羅)의 동쪽에 있다. 지형은 비파 모양으로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으며 동서는 수 천리이고 남북은 수 백 리이다.

구주(九州)²⁵⁾는 서쪽에 있어서 머리가 되고【비전(肥前), 비후(肥後), 풍전(豊前), 풍후(豊後), 축전(筑前), 축후(筑後), 일향(日向), 대우(大隅), 살마(薩摩)], 육오(陸奥)는 동쪽에 있어서 꼬리가 된다【산성(山城)에 이르려면 빨라도 75일 거리이다. 옛말에 육오가 머리가 되고 살마, 대우가 꼬리가 된다고 하였으나, 잘못이다.】

산성²⁶⁾은 중앙에 있으니 곧 수도이다. 임금은 ‘왕(王)’으로 써 성(姓)을 삼고, ‘존(尊)’으로 써 호(號)를 삼았는데, 뒤에 고쳐 황제라 칭하였다.

처음에는 일향(日向)²⁷⁾ 축자궁(筑紫宮)에 거처 하였으나, 뒤에 산성으로 옮겼다. 문무(文武)(막료와 관리는)는 모두 세습하

- 20) 요리(僚吏) : 막료와 관리 ~사고 전서(四庫全書) 주해도편(籌海圖編)에는 실려있음.
- 21) 일본고(日本考) : 중국 명대(明代) 1562년(가정 41)에 호종헌(胡宗憲)이 찬(撰) 《주해도편(籌海圖編)》 13권중 2권에 있는 ‘왜국사략(倭國事略)’ 항목이다.
- 22) 관직명
- 23) 관직명
- 24) 책판을 만들다, 인쇄하다. 편집상 뒷 사람 이름 뒤에만 붙였으나, 원문에는 두 사람의 이름에 모두 해당되게 들어가 있다. 학걸과 이언공이 함께 하였다고 보아야 함.
- 25) 지금의 규슈지역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 26) 지도 좌에서 두 번째 쪽 좌측 가운데 산성주(山城州) 지역에 일본국의 왕이 거처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 27) 지도 우에서 두 번째 쪽의 좌 상단에 있는 일향주(日向州)를 말하는 듯 함.



- 28) 지도를 보면, 지마(志摩), 칠도(七島)는 남쪽에 섬으로 나와 있지만, 상총(上總), 하총(下總), 안방(安房)은 지도의 가장 왼쪽 페이지 가운데에 있는데, 지도의 오류인지, 글의 오류인지 알 수 없다.
- 29) 지도에는 가장 좌측 쪽의 우 상단에 화천주가 있는데, 일본이 기울어진 것을 생각해서 지도를 돌려도 남쪽은 아닌 것 같다. 오류가 아닌가 한다.

其官有德仁義禮智信大小十二等及軍尼伊賀翼諸名.

山城以東地方廣邈，雖倭奴遠服賈者，不能閱歷，況華人乎，故其島之數可考。〔按舊圖，山城以東中爲近江伊賀尾張三河美濃飛彈信濃上野陸奥，北邊海爲但馬丹後若佐加賀越前越中越後出羽甲斐常陸，南邊海爲攝摩攝津大和河內遠江駿河伊豆相摩武藏下野，東北懸海則爲佐渡，在南懸海則志摩七島上總下總安房。〕

其間廣狹至有不能考者，今姑據所聞者述之。山城之南爲和泉〔其南海畧，泊舟者爲阿賣介撒几，

며, 그 관직은 덕(德)·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의 대(大)·소(小) 12등급 및 군(軍)·니(尼)·이(伊)·하(賀)·익(翼) 등 여러 명칭이 있다.

산성 동쪽 지방은 광막하여 비록 왜노가 멀리 장사치들을 복속시켰다해도 다 열거하지 못 하는데 중국인으로서야 어찌 하겠는가? 때문에 그 섬의 수 정도나 살필 수 있겠다.〔옛 지도를 살펴보면 산성 동쪽 중앙으로는 근강(近江), 이하(伊賀), 미장(尾張), 삼하(三河), 미농(美濃), 비탄(飛彈), 신농(信濃), 상야(上野), 육오(陸奥)이고, 북쪽의 바다가는 단마(但馬), 단후(丹後), 약좌(若佐), 가하(加賀), 월전(越前), 월중(越中), 월후(越後), 출우(出羽), 갑배(甲斐), 상륙(常陸)이 되고, 남쪽 바다는 섭마(攝摩), 섭진(攝津), 대화(大和), 하내(河內), 원강(遠江), 준하(駿河), 이두(伊豆), 상마(相摩), 무장(武藏), 하야(下野)이고, 동북으로 바다를 건너서는 좌도(佐渡)가 되고, 남쪽으로 바다 건너서는 지마(志摩), 칠도(七島), 상총(上總), 하총(下總), 안방(安房)이 된다²⁸⁾.〕

그 사이의 거리는 상고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임시로 들은 바에 근거하여 기술한다.

산성(山城)의 남쪽은 화천(和泉)²⁹⁾이고〔그 남쪽은 바다가 깊은데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곳은 아매개살레(阿賣介撒几), 왜타

爲歪打阿波，爲千撒几，爲天王者，爲沙界衣。】，又南爲沙界【其地方甚小】，沙界之東南爲紀伊【東爲三河出海之口濱大海，其島爲康大，爲科什麼，爲奴智。】，紀伊之西爲伊勢【北爲三河，其壘爲腰大，爲阿乃奴子。】，山城之西爲丹渡左爲攝津【其壘爲飄船谷，爲阿家世奴乎辣，爲素埋，爲男女懷，東南懸海爲安防州。】，左之西爲攝摩【其壘爲那敗，爲舍個世，爲抗茄，爲我這古，爲摩羅。】，右爲但馬右之西爲因幡丹渡西爲美作左爲備前【其壘爲兀什麼舵，爲茄賣茄里，爲多大】，左之西爲備中【出鐵。其壘爲山子加，爲官奴乎賴，爲那什摩。其南爲連島懸海三十里。】，右爲因幡右之西爲伯耆【沿海俱白沙無壘可泊。其鎮爲阿家殺紀，爲倭子介，爲他奴賀知。



아파(歪打阿波), 천살계(千撒几), 천왕자(天王者), 사계의(沙界衣)이다.】 또 남쪽은 사계(沙界)이고【그 지방은 매우 작다】， 사계의 동남쪽은 기이(紀伊)이다.【동쪽은 삼하(三河)로, 바다로 나아가는 입구이니 큰 바다의 가이다. 그 섬은 강대(康大), 과십마(科什麼), 노지(奴智)이다.】 기이의 서쪽은 이세(伊勢)이다【북쪽은 삼하인데 그 오(壘)는³⁰⁾ 요대(腰大), 아내노자(阿乃奴子)이다】. 산성의 서쪽은 단도(丹渡)이고, 왼쪽은 섭진(攝津)³¹⁾이다【그 오(壘)는 표선곡(飄船谷), 아가세노호랄(阿家世奴乎辣), 소매(素埋), 남여회(男女懷)이고, 동남쪽으로 바다를 건너서는 안방주(安防州)이다.】 왼쪽의 서쪽은 섭마(攝摩)이고【그 오(壘)는 나패(那敗), 사개세(舍個世), 항가(抗茄), 아저고(我這古), 마라(摩羅)이다.】 오른쪽은 단마(但馬)이고, 오른쪽의 서쪽은 인번(因幡), 단도(丹渡)이고 서쪽은 미작(美作), 왼쪽은 비전(備前)이다【그 오(壘)는 올십마타(兀什麼舵), 가매가리(茄賣茄里), 다대(多大)이다.】 왼쪽의 서는 비중(備中)이고【철이 난다. 그 오(壘)는 산자가(山子加), 관노호뢰(官奴乎賴), 나십마(那什摩)이다. 그 남쪽은 연도(連島)로 바다로 삼십리 떨어져 있다.】， 오른쪽은 인번(因幡)이고, 오른쪽의 서쪽은 백기(伯耆)이다【연해가 모두 백사장으로 정박할 수 있는 오(壘)가 없다. 그 진(鎭)은 아가살기(阿家殺紀), 왜자개(倭子介), 타노하지(他

- 30) 壘는 奥와 같은 자로, 일본고의 다른 부분들을 살피건 데, 바다가 깊어 배를 대어 놓을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31) 지도상 좌에서 두 번째 쪽 산성 주의 좌상에 있다.



其北爲竹島懸海三十里。】，美作之西爲備後之北境【其畧爲一子該一知，爲于奴鼻，爲和奴密知，爲拿敗，爲赦東大。】，出雲之南境【其畧爲番你，爲山子介，爲欽子溪，爲戶流，爲飛賴啞，爲失喇哈啞，爲也生忌，爲密和奴失記，其北爲隱岐懸海三百五十里。】

32) 은기산(隱岐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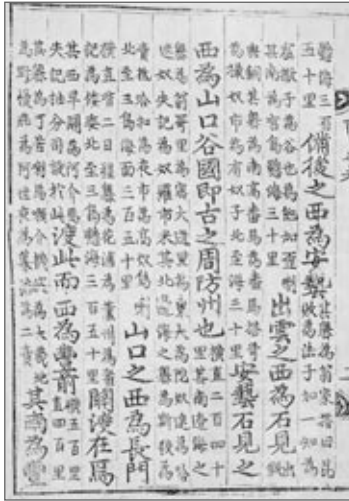
奴賀知)이다. 그 북쪽은 죽도(竹島)인데, 바다로 삼십리 떨어져 있다.】 미작(美作)의 서쪽은 비후(備後)의 북쪽 지역이고【그 오(畧)는 일자해일지(一子該一知), 우노비(于奴鼻), 화노밀지(和奴密知), 나패(拿敗), 사동대(赦東大)이다】，출운(出雲)의 남쪽 지역이다【그 오(畧)는 번이(番你), 산자개(山子介), 흠자계(欽子溪), 호류(戶流), 비뢰타(飛賴啞), 실라합타(失喇哈啞), 야생기(也生忌), 밀지노실기(密和奴失記)이고, 그 북쪽은 은기(隱岐)³²⁾로 바다로 삼백오십리 떨어져있다.】

備後之西爲安藝【其畧爲翁家搭曰昆敗，爲法子加一知，爲窟撒子，爲谷也，爲他加歪喇。其南爲宮島懸海三十里。】，出雲之西爲石見【出銀與銅。其畧爲南高番馬，爲番馬塔哥，爲撮奴市，爲有奴子，北至海三十里。】安藝石見之西爲山口谷國，卽古之周防州也。【橫直二百四十里。其南邊海之畧爲翁哥里，爲密大逝里，爲東大，爲陀奴迷，爲哈迷奴失記，爲奴羅市米。其北邊海之畧爲斯殺，爲賣抵哈扣，爲夜市，爲高奴烏喇。北至三島海面三百五十里。】



비후(備後)의 서쪽은 안예(安藝)이고【그 오(畧)는 웅가담알 곤패(翁家搭曰昆敗), 법자가일지(法子加一知), 굴살자(窟撒子), 곡야(谷也), 타가왜라(他加歪喇)이다. 그 남쪽은 궁도(宮島)로 바다 삼십리가 떨어져 있다.】，출운(出雲)의 서쪽은 석견(石見)이다【은과 구리가 난다. 그 오(畧)는 남고번마(南高番馬), 번마탑가(番馬塔哥), 찰노시(撮奴市), 유노자(有奴子)이고 북쪽으로 바다까지 삼십 리이다.】 안예(安藝)는 석견(石見)의 서쪽³³⁾으로 산구곡국(山口谷國)이니 바로 옛날의 주방주(周防州)³⁴⁾이다【가로와 세로로³⁵⁾ 이백 사십 리이다. 그 남쪽 바닷가의 오(畧)는 웅가리(翁哥里), 밀대서리(密大逝里), 동대(東大), 타노미(陀奴迷), 합미노실기(哈迷奴失記), 노라시미(奴羅市米)이고, 그 북쪽 바닷가의 오(畧)는 사살(斯殺), 매저합구(賣抵哈扣), 야시(夜市), 고노오라(高奴烏喇)이고, 북쪽은 삼도(三島)까지 바다로 삼백 오십 리이다.】

- 33) 지도를 보면 동쪽이라 해야 할 듯 하다. 지도는 오른쪽을 약간 올려 기울여 놓고 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더욱 동쪽이 맞다. 오자일 수도 있겠고, 그림이 그리 정확하지 않은 듯도 하다. 지도와 일본고가 따로 작성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할 수 있다.
- 34) 지도상 주방주는 석견주 우측에 표기되어 있다.
- 35) 곧 넓이를 표현.



山口之西爲長門【橫直皆二日程。 壘爲花浦，爲薰州，爲番記，爲倭委。 北至三島懸海三百五十里。】，關渡在焉【其西早關爲阿介馬，失記，抽分司說於此。】，渡此而西爲豐前【橫五百里，直四百里。 其壘爲可苦喇馬賴介機次，爲大義地，爲野慢茄，爲阿世夜，爲暮治，爲二賣。】，其南爲豐後

- 36) 육지와 수로의 교통 요도(要道)로 통상 관잡(關卡)을 설치해 둔다. 관진(關津)이라고도 한다.
- 37) 한(旱)에는 '屬陸地交通的'의 뜻이 있다. 앞의 '관도'와 다른 육지상의 관(關)을 말하는 것 같다.
- 38) 상세(商稅)를 거두는 관서

산구(山口)의 서쪽은 장문(長門)이니【가로 세로로 모두 이들 거리이다. 오(壘)는 화포(花浦), 훈주(薰州), 번기(番記), 왜위(倭委)이다. 북쪽으로 삼도까지 바다 삼백 오십 리가 떨어져 있다.】관도(關渡)³⁶⁾가 있다【그 서쪽은 한관(旱關)³⁷⁾으로 아개마(阿介馬)인데, 기록에 빠져 있다. 추분사(抽分司)³⁸⁾를 여기(장문)에 두었다.】

이를 건너 서쪽은 풍전(豊前)이고【가로로 오백 리, 세로로 사백 리이다. 그 오(壘)는 아고라마뢰개기차(可苦喇馬賴介機次), 대의지(大義地), 야만가(野慢茄), 아세야(阿世夜), 모치(暮治), 이매(二賣)이다.】，그 남쪽은 풍후(豊後)이다

【橫直皆六百里. 其畧爲福乃, 爲倭几奴法賣, 爲鎖孤舟, 爲由奴烏喇, 爲撒一基, 爲烏四基.】, 又其南爲日向【橫直皆三百六十里. 其畧爲多故奴甫治.】, 豐前之西北爲筑前【橫六百五十里, 直四百里. 其畧爲右勢, 爲加菩里, 爲加打也馬, 爲多賣里, 爲一萬字, 爲奴打, 爲世加, 爲經字里, 爲多羅, 爲密那多, 爲法哈即博多之別名也. 其北離伊岐島海面五百里.】, 西南爲筑後【橫直皆二百五十里.】, 筑後之南爲大隅【其南須海之畧爲什麼鳥思迷, 今之人訛傳爲懸海, 乃大漁州. 大隅與日向薩摩連壤, 名爲九州.】, 大隅之西爲薩摩【橫直皆三百六十里. 其畧爲暗字喇, 爲起麻子記, 爲羊理南, 爲康國什麼, 爲罷里, 爲拖馬里, 爲強頭馬里, 爲鸚哥里, 爲年市米, 爲仙臺, 爲審字者.】, 豐後東南懸海



【가로, 세로 모두 육백 리이다. 그 오(畧)는 복내(福乃), 왜퀘노법매(倭几奴法賣), 쇠고주(鎖孤舟), 유노오라(由奴烏喇), 살일기(撒一基), 오사기(烏四基)이다.】 또 그 남쪽은 일향(日向)이며【가로와 세로 모두 삼백 육십 리이다. 그 오(畧)는 다고노보치(多故奴甫治)이다.】, 풍전(豊前)의 서북쪽은 축전(筑前)이며【가로 육백 오십리, 세로 사백리이다. 그 오(畧)는 우세(右勢), 가보리(加菩里), 가타야마(加打也馬), 다매리(多賣里), 일만자(一萬字), 노타(奴打), 세가(世加), 경자리(經字里), 다라(多羅), 밀나다(密那多), 법합달(法哈)이니 곧 막다(博多)의 다른 이름이다. 그 북쪽은 이기도(伊岐島)까지 바다로 오백 리 떨어져 있다.】, 서남쪽은 축후(筑後)이며【가로, 세로 모두 이백 오십 리이다.】, 축후의 남쪽은 대우(大隅)이다【그 남쪽은 모름지기 바다가 깊은데 십마조사미(什麼鳥思迷)이다. 요즘 사람들이 와전하여 바다 건너 대어주(大漁州)라 한다. 대우(大隅)와 일향(日向), 살마(薩摩)는 연이어진 땅인데 구주(九州)³⁹⁾라 한다.】

대우의 서쪽은 살마이다【가로, 세로 모두 삼백 육십 리이다. 그 오(畧)는 암패라(暗字喇), 기마자기(起麻子記), 양리남(羊理南), 강구십마(康國什麼), 파리(罷里), 타마리(拖馬里), 강두마리(強頭馬里), 앵가리(鸚哥里), 연시미(年市米), 선대(仙臺), 번패자(審字者)이다.】, 풍후(豊後) 동남쪽으로 바다를 건너면 토

39) 구주에는 비전(肥前), 비후(肥後), 풍전(豊前), 풍후(豊後), 축전(筑前), 축후(筑後), 일향(日向), 대우(大隅), 살마(薩摩)가 있다.



爲土佐爲伊豫爲阿波阿波相近懸海爲炎路 土佐豐後之間爲佐加關【土佐至佐加關，海面一百八十里，佐加關至豐後，海面七十里。】，薩摩之北爲肥後【橫直皆五百里。其壘爲牙子世六，爲阿麻國撒，爲昏，爲一國撒介烏喇，爲開懷世利，爲加什，爲什 加。】，又其北爲肥前【橫直皆五百里。其壘爲鐵來，爲言奴氣子，爲法司奴一計，爲客舍。其內沿河泊舟交易之處，爲倭磨喇，爲知十歪，爲法一溪，爲夜間迷，爲坐迷子，爲迷坐骨知，爲一掃拂，爲愛奴乎喇，爲世子，爲迷古里，爲失撒，爲喃哥啊，爲雄婆哥，爲松本一名馬子喇，爲法麻撒几。】。

- 40) 토좌와 이에는 우에서 세 번째 쪽 상단에, 아파는 좌측 끝 쪽 우 상단에 보인다.
- 41) 지도의 우측 맨 위에 있는데, '가(加)' 자가 '가(家)' 자로 되어 있다. 다른 지역명에서도 일본고의 내용이 지도상에서는 일부 발음이 비슷한 글자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발견되는데, 발음을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 다른 글자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42) 지도에는 그냥 마자(馬子)라고 나와 있다.

좌(土佐), 이에(伊豫), 아파(阿波)이다⁴⁰⁾. 아파와 가까이 바다 건너서는 염로(炎路)이고, 토좌, 풍후의 사이는 좌가관(佐加關)이다⁴¹⁾. 【토좌에서 좌가관까지 바다로 백팔십 리이고, 좌가관에서 풍후까지 바다로 칠십 리이다.】 살마(薩摩)의 북쪽은 비후(肥後)이다【가로와 세로 모두 오백 리이다. 그 오(壘)는 아자세육(牙子世六), 아마국살(阿麻國撒), 혼(昏), 일국살개오라(一國撒介烏喇), 개회세리(開懷世利), 달가십(加什), 십달가(什加)이다.】 (거기서) 더 북쪽은 비전(肥前)이다【가로와 세로 모두 오백 리이다. 그 오(壘)는 철래(鐵來), 언노기자(言奴氣子), 법사노일계(法司奴一計), 객사(客舍)이다. 그 안의 강가에 배를 대고 교역하는 곳은 왜마라(倭磨喇), 지십왜(知十歪), 법일계(法一溪), 야간미(夜間迷), 좌미자(坐迷子), 미좌골지(迷坐骨知), 일소불(一掃拂), 애노호라(愛奴乎喇), 세자(世子), 미고리(迷古里), 실살(失撒), 남가아(喃哥啊), 웅과가(雄婆哥), 송본(松本 - 일명 마자라(馬子喇))⁴²⁾, 법마살레(法麻撒几)이다.】

肥前西懸海爲平戶【東西海面十里，西北至博多海面四百五十里。】，平戶之西爲五島【丘山相錯懸海而生，其中有壘可泊，乃日本西境之盡處也。過此西行越五六日，四望無山直抵陳錢壁下，此島與薩摩相去一千五百里，與肥前相去四百三十里，與平戶相去二千五十里。五島至山日，必由平戶經過。



비전(肥前)의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서는 평호(平戶)⁴³⁾이다【동서가 바다로 십리이고, 서북⁴⁴⁾으로 박다(博多)까지 바다로 사백 오십 리이다.】 평호(平戶)의 서쪽은 오도(五島)⁴⁵⁾이고【바다를 사이에 두고 언덕과 산이 이리 저리 얼크러져 나와 있는데, 배를 댈 수 있는 오(壘)가 있다. 곧 일본 서쪽 지역이 끝나는 곳이다. 여기를 지나서 서쪽으로 오, 육일을 넘게 가면 사방을 둘러보아도 산이라곤 없고, 바로 진전벽(陳錢壁) 아래에 다르다. 이 섬(오도)과 살마(薩摩)는 천오백리 떨어져 있고, 비전(肥前)과는 사백 삼십 리, 평호(平戶)와는 이천 오십 리이다. 오도(五島)에서 산일(山日)까지는 반드시 평호(平戶)를 경유하여 지나간다.

- 43) 지도에서 찾기 어렵다. 현 큐슈 북서부의 히라다(平戶)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 44) 동북쪽이라 해야 맞지 않나 싶다. 지도상 박다는 축전주(筑前州)에 있다.
- 45) 현재의 나가사키 서쪽에 있는 고도(五島) 열도를 말하는 듯 하다.



- 46) 공물(貢物)을 바치러 가던 사신(使臣).
- 47) 지도 위에서 두 번째 쪽 좌 좌 단.
- 48) 상세를 거두는 관청.

其巖爲乃路，爲倭齊家，爲衣屋奴密，爲通記，爲達奴烏喇，爲烏苦，爲話哈.]，北爲多藝爲伊岐[橫直皆七十里，至對馬島海面五百里.]，爲對馬島[橫三百里，其南巖爲哥，爲甘大哈，東南爲拂乃哥世，西北爲堆沙几，爲山谷，爲撒思乃，爲知六磨，爲你打，北爲倭奴烏喇.]，其西北至高麗也必由對馬島開洋[各島之人，俱至堆沙几撒思乃山谷三巖開洋至高麗之則失多，順風一日約五百里.]. 南至琉球也，必由薩摩州開洋，順風七日. 其貢使之來必由博多開洋，歷五島而入中國，因造舟水手，俱在博多故也. 貢舶回則徑收長門，因抽分司官在爲故也.

그 오(巖)는 내로(乃路), 왜제가(倭齊家), 의옥노밀(衣屋奴密), 통기(通記), 달노오라(達奴烏喇), 오고(烏苦), 후합달(話哈)이다], 북쪽은 다예(多藝), 이기(伊岐)[가로와 세로로 모두 칠십 리이다. 대마도(對馬島)까지는 바다로 오백 리이다], 대마도(對馬島)이다[가로로 삼백 리이다. 그 남쪽 오(巖)는 가(哥), 감대합(甘大哈), 동남쪽은 불내가세(拂乃哥世), 서북쪽은 퇴사래(堆沙几), 산곡(山谷), 살사내(撒思乃), 지육마(知六磨), 이타(你打), 북쪽은 왜노오라(倭奴烏喇)이다.] 그 서북쪽으로는 고려(高麗)에 이르는데, 반드시 대마도를 경유하여 바다로 나아간다

【각 섬의 사람들은 모두 퇴사래(堆沙几), 살사내(撒思乃), 산곡(山谷)의 세 오(巖)에 이르러 바다로 나아가 고려(高麗)에 이르는데, 실패도 많이 하지만, 순풍을 많이 타면 하루 약 오백 리를 간다.】 남쪽으로 유구(琉球)까지는 반드시 살마주(薩摩州)를 경유하여 바다로 나아가는데 순풍으로 칠일이다.

그 공사(貢使)⁴⁶⁾가 오는 것은 모름지기 박다(博多)⁴⁷⁾를 경유하여 바다로 나아가, 오도(五島)를 거쳐 중국에 들어간다. 배를 만들고 사공을 갖추는 모두가 박다에 있기 때문이다. 공납선이 돌아 올 때는 반드시 장문(長門)으로 모였다 가는데, 추분사관(抽分司官)⁴⁸⁾이 있기 때문이다.

若其入寇則隨風所之，東北風猛，則由薩摩或由五島，至大小琉球，而視風之變遷，北多則犯廣東，東多則犯福建【澎湖島分鯨，或之泉州等處，或之梅花所長樂縣等處。】，若正東風猛，則必由五島歷天堂官渡水，而視風之變遷，東北多則至烏沙門分鯨，或過韭山海關門而犯溫州，或由舟山之南而犯定海【經大貓洋，入金塘蛟門。】，犯象山奉化【由東西廚，入湖頭渡。】，犯昌國【入石浦關。】，犯台州【入桃渚海門松門諸港。】，正東風多則至李西巖壁下陳錢分鯨，或由洋山之南而犯臨觀【過漁山兩頭洞三姑山，入蝗浦則犯紹興之臨山三山，過霍山洋五嶼烈表平石，則犯寧波之龍山觀海。】，



적들이 침입한다면 바람이 가는 곳을 따라서이니, 동북풍이 맹렬하면 살마나 오도를 경유하여 대소(大小) 유구(琉球)에 이르고, 바람의 변화를 보아 북풍이 많으면 광둥(廣東)⁴⁹⁾을 침범하고, 동풍이 많으면 복건(福建)을 범한다. 【팽호도(澎湖島)에서 선대(鯨)⁵⁰⁾을 나누어 천주(泉州) 같은 곳이나 매화소(梅花所), 장낙현(長樂縣) 등의 장소로 간다.】

정동풍이 맹렬하면 반드시 오도를 경유하여 천당관(天堂官)을 거쳐 물을 건너고, 바람의 변화를 보아서 동북풍이 많으면, 오사문(烏沙門)에 이르러 선대를 나누어, 혹은 구산해갑문(韭山海關門)을 지나 온주(溫州)를 침범하거나, 혹은 주산(舟山)의 남쪽으로 해서 정해(定海)【대묘양(大貓洋)을 거쳐 금당교문(金塘蛟門)에 들어간다】， 상산(象山)， 봉화(奉化)【동서주(東西廚)를 경유하여 호두도(湖頭渡)에 들어간다】， 창국(昌國)【석포관(石浦關)에 들어간다】， 태주(台州)【도저(桃渚) 해문(海門) 송문(松門) 여러 항구에 들어간다】를 침범한다. 정동풍이 많으면 이서오벽(李西巖壁) 아래 진전(陳錢)에 이르러 선대를 나누어, 혹은 양산(洋山)의 남쪽으로 해서 임관(臨觀)【어산(漁山) 양두동(兩頭洞) 삼고산(三姑山)을 지나 정포(蝗浦)에 들면 소흥(紹興)의 임산(臨山) 삼산(三山)을 범하고, 광산(霍山) 양오(洋五)와 열표(烈表) 평석(平石)을 지나면 영파(寧波)의 용산(龍山) 관해

49) 중국 남부.

50) 종(鯨) : 선대(船隊)



犯錢塘【過大小衢徐公，入鼈子門赭山，則簿省城也。】或由洋山之北而犯青南【過馬蹟潭而西。】，犯太倉【過馬蹟潭而西北。】，或過南沙而入大江【過茶山，入瞭嘴涉谷積狼福山而瓜儀常鎮。】，若在大洋而風欬東南也則犯淮揚犯登萊【過步州洋亂沙，入塩城口，則犯淮安，入廟灣港，則犯揚州，在越而北則犯登萊。】，若在五島開洋而南風方猛，則趨遼陽趨天津。

大抵倭舶之來，恒在清明之後，前乎此風候不常屆期方有東北風多日而不變也。過五月風自南來，倭不利於行矣。重陽後風亦有東北者，過十月風自西北來，亦非倭所利矣。故防春者，以三四五月爲大汛，九十月爲小汛。

51) 24절기 가운데 다섯째에 해당하며, 춘분(春分)과 곡우(穀雨) 사이에 든다. 음력으로는 3월이지만, 양력으로는 4월 5·6일 무렵이므로 태양의 황경(黃經)이 15°에 있을 때이다. 보통 한식(寒食)의 하루 전날이거나 한식과 같은 날이 많고, 오늘날의 식목일(植木日)과도 겹치는 경우가 흔하다.

52) 풍신시월(風汛時月)에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 : 3, 4, 5월을 춘신(春汛), 대신(大汛)이라 하며, 9, 10월을 소신(小汛)이라 한다. 이 시기의 바람 방향으로 인해, 왜구의 침입이 잦았기 때문에, 연해(沿海)의 수군들에게는 이 시기의 방비가 가장 중요했다. '신(汛)' 자는 무엇인가가 많은 시절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방신(防汛)이라 하면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조치를 말한다. 또한, 신(汛)이라는 말은 청대의 녹영병(綠營兵)의 파출소를 지칭하기도 하니, 대신(大汛), 소신(小汛)은 경계강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군령의 하나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

(觀海)를 범한다], 전당(錢塘)[크고 작은 구서공(衢徐公)을 지나 별자문(鼈子門) 자산(赭山)에 들어가면 부성성(簿省城)이다]을 침범하거나, 혹은 양산(洋山)의 북쪽을 경유하여 청남(靑南)[마적담(馬蹟潭)을 지나 서쪽], 태창(太倉)[마적담을 지나 서북쪽]을 범하고, 혹은 남사(南沙)를 지나 대강(大江)[다산(茶山)을 지나 요취섭곡(瞭嘴涉谷), 적랑복산(積狼福山)과 과의상진(瓜儀常鎮)]에 들어간다.

대양(大洋)에 있는데 바람이 갑자기 동남으로 불면 회양(淮揚), 등래(登萊)[보주양난사(步州洋亂沙)를 지나 염성구(塩城口)로 들어가면 회안(淮安)을 범하고, 묘만항(廟灣港)으로 들어가면 양주(揚州)를 범하고, 다시 넘어 북으로 가면 등래를 범한다]를 범한다. 만약 오도(五島)에 있다가 바다로 나아갔는데 남풍이 맹렬해지기 시작하면 요양(遼陽)이나 천진(天津)으로 간다.

대체로 왜선이 오는 것은 항상 청명절⁵¹⁾ 이후인데, 이(청명절) 전에는 바람이 일정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비로소 동북풍이 변함없이 많이 분다. 오월이 지나면 바람이 남쪽에서 부니 왜가 다니기에는 불리하다. 중앙절 이후에도 동북풍이 있지만, 10월이 지나면 바람은 서북에서 불어오니 또한 왜(선)에는 이롭지 않다. 때문에 봄철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3·4·5월을 대신(大汛)으로 하고, 9·10월은 소신(小汛)으로 한다.⁵²⁾

其停橈之處，焚劫之權，若倭得而主之，而其帆檣所向一視乎風實有天意存乎其間。倭不得而主之向之。入寇者，薩摩肥後長門三州之人居多，其次則大隅筑前筑後博多日向攝摩津州紀伊種島，而豐前豐後和泉之人，亦間有之，乃因商于薩摩而附行者也。

日本之民有貧有富【如攝摩伊勢若佐博多，其人以商爲業，其地方街巷風景宛若中華，富者各數千家，有積貲至百萬者，又如和泉一州，富者八萬戶，皆居積貨殖。】，有淑有慝【如薩摩之鸚哥里，方數千里，其邑長安慶能，納民于軌物，無一人爲盜，又如宮島人，不嗜殺人，



노를 정지하(고 머무)는 곳에서는 불태우고 빼앗는 권한을 마치 왜가 가지고서 주관하듯 하지만, 돛대가 향하는 것은 전적으로 바람에 달려 있으니, 실로 그 속에는 하늘의 뜻이 있는 것이며, 왜가 마음대로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침범하는 자들은 살마(薩摩)·비후(肥後)·장문(長門) 세 주(三州)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대우(大隅)·축전(筑前)·축후(筑後)·박다(博多)·일향(日向)·섭마(攝摩)·진주(津州)·기이(紀伊) 등의 섬 사람들이고, 풍전(豊前)·풍후(豊後)·화천(和泉)의 사람들도 간간이 있는데 살마에서 상업하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자들이다.

일본의 백성은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으며【섭마·이세(伊勢)·약좌(若佐)·박다(博多) 같은 곳은 상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 그 지방 거리의 풍경은 완전히 중국과 같아서, 부자가 각각 수천 가(家)로 쌓인 재물이 백만금에 이르는 자도 있다. 또 화천주 같은 경우는 부자가 8만호인데, 모두들 재물을 쌓아 놓고 장사를 한다.】,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 【살마(薩摩)의 앵가리(鸚哥里) 같은 곳은 사방 수천 리로, 그 읍은 장안(長安)·경능(慶能)인데, 백성들을 통솔 영도하여 궤(軌)와 물(物)에 알맞으니⁵³⁾, 한 사람도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또 궁도(宮島) 사람들 같은 경우, 살인을 좋아하지 않으며, 잘

53) 행하는 바가 법도에 알맞음을 궤(軌)라 하고, 얻은 재물을 씌이 법도에 알맞는 것을 물(物)이라 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은공(隱公) 5년 봄의 내용에 이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부기한다.

“君，將納民於軌’物者也。故講事以度軌量謂之軌，取材以章物采謂之物。不軌不物，謂之亂政。”



54) 단서(呑噬) : 씹어 삼킨. 다른 나라를 병합함을 말함.

有不平事，但詣神廟罰錢，又如紀伊之頭陀僧，三千八百房，傳習武藝殺人，而不犯中國。】
 富而淑者，或登貢舶而來，或登商舶而來，凡在寇舶，皆貧與惡者也。山城君號今不行，徒寄空名於上，非若我中國禮樂征伐，自天子出大一統之治也。山口豐後出雲開三軍門【如中國總督府之義。】，各以大權相呑噬，今惟豐後尚存，亦不過兼并肥前等六島而已【肥前肥後筑前筑後豐前豐後】。山口出雲以貪滅亡【山口原并國十二，曰石見長門安藝備前備後備中出雲伯岐丹後因幡但馬，後出雲奪歸其地，山口長子死焉，其君亦爲陶殿所殺，豐後君以其弟攝山口事，吞安藝安藝殺之，

못한 일이 있으면 단지 신묘(神廟)에 나아가 벌전(罰錢)을 낼 뿐이다. 또 기이(紀伊)의 두타승(頭陀僧) 3,800방(房)은 무예, 살인을 전하고 익히지만, 중국을 침범하지 않는다】.

부유하고 착한 자들은 공납선(貢舶)을 타고 오기도 하고, 상선을 타고 오기도 한다. 왜구의 배에 있는 자들은 모두 가난하고 악한 자들이다. 산성군(山城君)의 호령이 행해지지 않고, 임금(上)은 이름뿐이니, 우리 중국이 예악(禮樂)과 정벌에 있어 천자로부터 크게 하나로 통일된 다스림이 나오는 것과 같지 않다. 산구(山口)·풍후(豊後)·출운(出雲)은 삼군문(三軍門)을 열었는데【중국의 총독부와 같은 뜻이다】，각기 대권(大權)으로 서로를 병합하였다【呑噬⁵⁴⁾】. 지금은 오직 풍후만이 존재하는데，(이 또한) 비전(肥前) 등의 육도(六島)를 합병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비전·비후·축전·축후·풍전·풍후(豊後)】. 산구(山口)와 출운(出雲)은 탐욕으로 멸망했다【산구(山口)가 원래 병합한 나라는 열 둘이었는데，석현(石見)·장문(長門)·안예(安藝)·비전(備前)·비후(備後)·비중(備中)·출운(出雲)·백기(伯岐)·단후(丹後)·인번(因幡)·단마(但馬)이다. 이후에 출운은 그 땅을 되찾았다. 산구의 장자(長子)가 죽었는데，그 군(君)마저 도전(陶殿)에게 살해당했다. 풍후군(豊後君)이 그 동생으로 산구(山口)를 관리하게 하였고，안예(安藝)를 합병하려

嘉靖三十六年，山口無君，豐後獨稱雄焉。山城君金印勘合，久爲山口所有，何來入貢俱山口自主，山城惟出名而已。陶殿之亂，宮殿勘合俱焚，金印亦損一角，不知所歸，貢自此絕矣。】，欲望彼國之約束，諸夷斷斷乎不能也。



했으나 안예가 그를 죽였다. 가정 36년(1557) 산구(山口)에는 군(君)이 없었고 풍후만이 으뜸[雄]이라 칭하였다. 산성군(山城君)⁵⁵⁾의 금인(金印)·감합(勘合)⁵⁶⁾을 오래 동안 산구(山口)에서 소유하여, 들어오는 공물은 모두 산구(山口)가 스스로 관리하였고, 산성군(山城君)은 오직 이름만 낼 뿐이었다. 도전의 난에 궁전(宮殿)과 감합(勘合)이 모두 불타고, 금인(金印)도 한 모서리가 손상되었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다. 공물이 이때부터 끊어졌다.】 그 나라의 결속(約束)을 바라나, 여러 오랑캐들이 분열되어 그리 하지 못한다.

55) 산성(山城)이 일본의 국도임을 참고할 것.

56) 감합(勘合) : 부절(符節) 혹은 신표(信標)를 말한다.



57) 광주와 복건성의 배

58) 광주의 배

59) 방두(旁陡): 배 옆의 가파른 곳.

倭船

日本造船與中國異. 必用大木, 取方相思合縫, 不使鐵釘, 惟聯鐵片, 不使麻筋桐油, 惟以草塞罅漏而已〔名短水草〕. 費功甚多, 費材甚大, 非大力量, 未易造也.

凡寇中國者, 皆其島貧人. 向來所傳, 倭國造船, 千百隻, 皆虛誑耳. 其大者容三百人, 中者一二百人, 小者四五十人, 或七八十人. 其形卑隘, 遇巨艦, 難於仰攻, 苦於犁沈, 故廣福船, 皆其所畏, 而廣船旁陡如垣, 尤其所畏者也.

왜선

일본의 배 만드는 것은 중국과 다르다. 반드시 큰 나무를 사용하여 네모진 형상을 취하여 서로 봉합하고, 쇠못은 사용하지 않는다. 철편으로만 연결하고, 삼줄과 오동나무 기름은 사용하지 않으며, 풀만 가지고 새는 곳을 막을 뿐이다. [이름은 단수초(短水草)이다.] 비용과 공역이 매우 많이 들며, 소비되는 목재도 매우 많아서 큰 역량이 없으면 쉽게 (배를) 만들 수 없다.

중국을 침범하는 자들은 모두 섬의 빈민들이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왜국에서 배를 만든 것이 천백 척이라 하는데 모두 허황된 이야기일 뿐이다. (일본 배 중에) 큰 것은 삼백 명을 수용하고, 중간 것은 일백 명을, 작은 것은 사오십 명 혹은 칠팔십 명을 수용한다. 배의 모양은 낮고 좁아서 거함(巨艦)을 만나면 위를 바라보며 공격하기가 어렵고, 침몰될까 두려워함에 고달프다. 때문에 광복선(廣福船)⁵⁷⁾을 모두 꺼리며, 광선(廣船)⁵⁸⁾의 담과 같은 방두(旁陡)⁵⁹⁾는 더욱 꺼려하는 것이다.

其底平，不能破浪，其布帆懸於桅之正中，不似中國之偏桅，機常活，不似中國之定，惟使順風，若遇無風逆風，皆倒桅盪，櫓不能轉舵，故倭船過洋，非月餘不可，今若易然者，乃福建沿海奸民，買舟于外海，貼造重底渡之，而來其船底尖能破浪，不畏橫風鬪風，行使便易數日卽至也。

凡倭船之來，每人帶水，四百斤約八百碗，每日用水六碗，極其愛惜，常防匱乏也。水味不同，海水鹹不可食，食卽令人泄，故彼國開洋，必與五島取水。



그 (배의) 바닥은 평평하여 파랑(破浪)⁶⁰할 수 없고, 베로 만든 돛은 돛대의 정중앙에 매달려 있으니 중국의 치우쳐 있는 것과 다르며, 돛대는 항상 움직이니 중국의 고정된 것과 같지 않다. (돛은) 오직 순풍(順風)에만 사용하며 만약 바람이 없거나 역풍(逆風)이 불면 모두 돛대를 뉘어 놓는다. 노(櫓)는 전창(轉創)할 수 없다. 때문에 왜선이 바다(洋)를 지나가는 것은 한 달 남짓이 걸리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지금 쉽게 항해하는 듯한 배들은 복건성 연해의 간사한 백성들이 외부에 배를 판 것이다.⁶¹ (무엇인가를) 붙여 바닥을 무겁게 해서 건너오는데, 그 배 바닥의 끝이 뾰족하여 파랑(破浪)할 수 있고, 횡풍(橫風)·투풍(鬪風)도 꺼리 낄 것이 없으니, 항해가 용이하여 수일이면 도착한다.

무릇 왜선이 올 때에 사람마다 지나는 물은 400근, 약 800그릇으로, 매일 물 여섯 그릇을 쓴다. 극도로 아껴서 항상 부족함에 대비한다. 물의 맛은 같지 않은데, 바닷물은 짜서 먹을 수 없고, 마시면 설사를 일으킨다. 때문에 그 나라에서 바다로 나갈 때는 반드시 오도(五島)에서 물을 취해 가지고 간다.

60) 파랑(破浪) : 파도를 헤치고 나갈.

61) 買는 賣의 오식인 듯하다.



將近中國過下，入山陳錢之類，必停舶換水，所以欲換者，冬寒稍可耐久，若五六月蓄之桶中，二三日即壞，雖甚清冽，不能過數日也。海洋浩渺，風濤巨測程，不可計遇山而汲，亦其勢耳。鹽類沐浴，海水山水皆可用，或云浴海水，令人膚裂，近訪之不然，但黑其膚而已。倭奴有一秘法，煮泉一二沸置之缸缶，能令宿而不壞然，亦不過半月，久則不能也。其至普陀，必登者，非換水，亦非真欲焚香，乃覬兵防虛實耳。

- 62) 이 글에서 산은 꼭 육지의 산만을 말하지 않는다. 바다 속에서 섬처럼 솟아 나온 것도 포함하는 말이다.
- 63) 보타산(普陀山)을 줄여 부른 것이다. 보타산은 중국 절강성(浙江省) 정해현(定海縣)에 있으며, 중국 불교 사대 명산 중의 하나이다. 많은 사원과 탑이 있다.

중국 가까이로 가려 할 때에는 진진(陳錢) 등지의 산⁶²⁾에 들어가 배를 정박하고 물을 바꾼다. 바꾸려는 이유는, 겨울 추위에는 조금 오래 가지만 5·6월이면 물통 속에 2~3일만 저장해도 바로 변질되고, (물이) 매우 맑고 깨끗해도 며칠을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바다는 아득한데 바람과 파도는 헤아리기 어려우니, 산을 만나 물을 얻는 것을 계획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 또한 그 형편일 따름이다. 씻는 것(鹽類沐浴)은 바닷물과 산수(山水)를 모두 쓸 수 있다. 혹자는 바닷물에 목욕하면 피부가 갈라진다고 하지만, 주위에 물어보면 그렇지 않고 단지 피부가 검어질 뿐이다. 왜노(倭奴)에게는 한 가지 비법이 있으니, 샘물을 끓이기를 한 두 번하여 항아리에 두면 오래 보관해도 변질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름을 넘기지 못하며, 오래되면 어쩔 수 없다. 보타(普陀)⁶³⁾에 이르러 반드시 (산에) 오르는 것은 물을 바꾸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분향(焚香)하고자 함도 아니며, 군사 방어의 허실을 염탐하고자 함이다.

寇術

【倭奴之勝我兵，專以術也，卽以其術還治其人，不必用古兵法，蔑不勝矣，故志之。】

倭夷慣爲蝴蝶陳，臨陣以揮扇爲號，一人揮扇衆皆舞刀而起向空揮霍，我兵蒼皇仰首，則從下砍來。又爲長蛇陳，前耀百脚旗，以次魚貫而行，最強爲鋒，最強爲殿中，皆勇怯相參。

賊每日鷄鳴起，蟠地會食，食畢夷酋據高，坐衆皆聽令，挾册展視，今日劫某處，某爲長，某爲隊。隊不過三十人，每隊相去一二里。吹海螺爲號，



구술⁶⁴⁾

【왜노가 우리 병사에게 승리한 것은 오로지 술수[術] 때문이다. 그 술수로 다시 그들을(왜구들을) 다스리면⁶⁵⁾, 굳이 옛 병법을 쓰지 않더라도 승리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그래서 기록한다.】

왜이(倭夷)는 보통 호접진(蝴蝶陣)⁶⁶⁾을 치는데, 전투시에는 선(扇)⁶⁷⁾을 휘두르는 것으로 호령⁶⁸⁾을 삼는데, 한 사람이 선(扇)을 휘두르면, 무리들 모두가 칼을 춤추며⁶⁹⁾ 일어나 공중(空中)으로 칼날을 번뜩이며 재빨리⁷⁰⁾ 휘두른다. 우리 병사들이 정신 없이 바라보고 있다가는 한 칼에 베여 버린다.

또 장사진(長蛇陣)⁷¹⁾도 펼치는데, 앞에서 백각기(百脚旗)가 번쩍하면 순서대로 줄줄이 나가는데, 선봉[鋒]과 전(殿)이 가장 강하며, 중간에는 모두 용겁(勇怯)⁷²⁾이 섞여 있다.⁷³⁾

적들은 매일 닭이 울 때 일어나, 땅에 몸을 감고 엎드려서 모여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나면 이추(夷酋)⁷⁴⁾가 높은 데 자리 잡고 앉고 무리들은 모두 명령을 듣는데, 책을 끼고 와 펼쳐 보고는 금일은 어디를 약탈하고, 누구를 대장으로 하고, 누가 대(隊)⁷⁵⁾가 될지를 알린다. 대(隊)는 30인을 넘지 않는데, 매 대는 서로 12리 정도 떨어진다. 바다 고동을 부는 것을 신호로 하여,

- 64) '왜구의 기술, 술수'의 뜻.
- 65) 왜구의 술수로 왜구를 제압하는 것을 말할.
- 66) 진법의 일종
- 67) 천강선(天罡扇)을 말할. (신호, 군령용)
- 68) 호령 : 여기에서는 전투시에 행해지는 신호 체계를 말한다.
- 69) 상대 없이 휘둘러 기세를 돋우는 것임
- 70) 실제로 상대를 앞에 두고 방어와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휘둘러대는 것.
- 71) 진법의 일종.
- 72) 용겁(勇怯) : 용맹한 군사와 약한 군사.
- 73) 장사진은 한 줄로 옆으로 길게 늘어서서 적의 무리를 상대하는데, 이때 가운데 있는 자들이 먼저 나와 적을 상대하게 되니 선봉[鋒]이며, 가장 강한 자들로 구성된다. 선봉이 적의 무리와 붙어 싸우면, 양 끝 부분의 사람들이 옆에서 돌아와 적들을 치는데, 이들이 전(殿)으로 역시 강한 자들로 구성된다. 이외의 중간 부분들은 강자와 약자가 섞이게 된다. 이 진법이 변형된 것이 학익진이다.
- 74) 이추(夷酋) : 우두머리를 말한다.
- 75) 부대원



- 76) 혹렬(酷裂)로 되어 있는데 혹렬(혹렬)의 오식인 듯.
 77) 위항(委巷) : 꼬불꼬불한 좁은 길

相聞卽合救援. 亦有二三人一隊者, 舞刀橫行, 人望之, 股慄遠避延頸授首. 薄暮卽返, 各獻其所劫財物, 毋敢匿, 夷酋較其多寡而竄縮之. 每擄婦女, 夜必酒色酣睡. 劫掠將終, 縱之以焚炬焰燭, 天人方畏其酷裂, 而賊則抽去矣. 愚諭我民, 勿使邀擊, 自爲全脫, 專用此術.

賊至民間遇酒饌, 先令我民嘗之, 然後飲食, 恐設毒也. 行衢陌間, 不入委巷, 恐設伏也. 又不敢沿城而行, 恐城上拋磚石也.

서로 들으면 (공) 모여서 구원해 준다. 또 2, 3인으로 한 대(隊)를 이루는 경우가 있는데, 칼을 휘두르며 횡행함에, 사람들이 보고는, 벌벌 떨고 멀리 피하며, 목을 빼고 머리를 준다. 황혼이 되면 돌아와서 각기 노략질한 재물을 내어 놓는데, 감히 숨기지 못한다. 이추(夷酋)가 많고 적음을 비교하여 공에 따라 배분한다. 부녀자를 잡아올 때마다 밤에 반드시 주색을 즐기고 폭 잔다. 노략질이 끝날 때쯤이 되면 불을 놓아 태워 버리니, 중국인들(천인(天人))이 그 잔혹함⁷⁶⁾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적들은 빠져나간다. 나는 우리 백성들에게 (왜노와) 맞부딪치지 말고 다 빠져나가도록 하는데, 전적으로 이 방법을 쓰도록 한다.

적들이 백성들에게 이르러 술과 음식을 만나면, 먼저 우리 백성에게 명령하여 맛보도록 한 연후에 먹고 마시는데, 독을 넣었을까 염려해서이다. 길거리를 지날 때 위항(委巷)⁷⁷⁾에는 들어가지 않으니 매복을 염려해서이다. 또 성곽 근처는 감히 지나지 못하니 성 위에서 돌을 던질까 염려해서이다.

其行必單列而長，緩步而整，故占數十里，莫能近馳，數十日不爲勞。

布陣必四分五裂，故能圍。

對營必先遣一二人，跳躍而蹲伏，故能空竭，吾之矢石火炮。

衝陳必伺人先動，動而後突入，乘勝長驅，戰酣必四面伏起突遶陳後，故令我軍驚潰。

每用怪術，若結羊驅婦之類，當先以駭觀，故吾目眩而彼械乘慣

雙刀，上誑而下反掠，故難格。



그 행렬은 반드시 단열(單列)로 길고, 느린 걸음으로 가지런하다. 그래서 수십 리를 점유하니, 가까운 곳을 빠르게 갈 수는 없지만, 수십 일이 되어도 지치지 않는다.

포진(布陣)⁷⁸⁾은 반드시 사분(四分) 오열(五裂)로 하기 때문에 (상대들) 포위할 수 있다.

대영(對營-상대진영과 대치함)에 반드시 1, 2인을 먼저 보내서, 뛰어 오르고 쭉그려 엮드리게 하니, 때문에 우리의 화살과 돌·화포를 허비하게 할 수 있다.

충진(衝陣)⁷⁹⁾은 반드시 사인(伺人)⁸⁰⁾이 먼저 움직이고, 움직인 후에 돌입하여 승세를 타서 적을 계속 몰아치는데, 전투가 한창 무르익으면 반드시 사방의 복병들이 갑자기 일어나 진 뒤를 돌격해 들어오니, 우리 군사들은 놀라서 허물어진다.

매번 괴이한 술수를 사용하니, 결양구부(結羊驅婦)⁸¹⁾와 같은 식이다. 앞에서 놀라서 바라보니, 우리 눈은 어리둥절해지고, 적들은 그 때를 틈타서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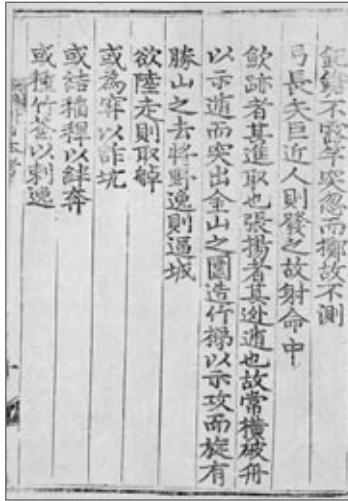
쌍도(雙刀)는 위를 공격하는 척 속이고는 아래를 공격하기 때문에 막기가 어렵다.

78) 진을 펼침.

79) 상대의 진영을 공격함.

80) 정탐꾼

81) 어린아이, 노약자, 부녀자와 군사들이 섞여 들어오는 것을 말함.



鈹鎗不露竿突忽而擲，故不測。
 弓長矢巨，近人則發之，故射命中。
 歛跡者，其進取也，張揚者，其外遁也。故常橫破舟以示遁而
 突出金山之圍，造竹梯以示攻而旋有勝山之去，
 將野逸則逼城。
 欲陸走則取觥⁸²⁾
 或爲窆以詐坑。
 或結稻稈以絆奔。
 或種竹簽以刺逸。

- 82) 觥 : 아마도 도(棹;배짓는 노)자(字)와 같은 의미인듯하다.
- 83) 파창(鈹鎗) : 여기서 파(鈹)는 당파(鎗鎗)가 아니고, 일본식의 표창(수리검 등) 종류가 아닌가 여겨진다.
- 84) 개구리 움츠리듯 움츠리는 것.
- 85) 허장성세를 부리는 것.
- 86) 《주해도편(籌海圖編)》 권 2에는 “將野逸則逼城”이 개행(다른 줄로 독립되어)되어 기록되어 있다. ~ 여기서도 이에 따랐다.
- 87) 아마도 대나무 꼬챙이들을 함정에 묻어 놓거나 교묘하게 설치해서 포로들을 탈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파창(鈹鎗)⁸³⁾은 자루를 드러내지 않고 갑작스럽게 던지는 까닭에 예측할 수 없다.

활은 길고 화살은 큰데, 사람이 가까이 오면 쏘는 까닭에 쏘면 명중한다.

염적(歛跡)⁸⁴⁾은 나아가기 위한 것이며, 장양(張揚)⁸⁵⁾은 도망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배를 가로로 깨트리고 숨는 척했다가는 금산(金山) 주위에서 갑자기 나오며, 대나무 사다리를 만들어 공격하는 척 하다가는 곧이어 승산으로 달아난다.

들로 달아나려 하다가 성을 킁박한다⁸⁶⁾.

육지로 도망가려면 배를 취한다.

혹은 함정을 만들어 구덩이로 속인다.

혹은 벧짚을 땅은 줄로 도망가는 자들을 묶는다.

혹은 죽참(竹簽)⁸⁷⁾을 종(種)하여 도망자들을 찌른다.

常以玉帛金銀婦女爲餌，故能誘引吾軍之進陷，而樂罷吾軍之邀迫。

俘虜必開塘而結舌，莫辨其非倭，故歸路絕。

恩施附巢之居民，故虛實洞知。

賞豐降擄之工匠，故器械易具。

細作用吾人，故盤詰難。

向導用吾人，故進退熟。

預籍富實姓名，而次第取之，故多獲。

宿食必破壁而處，乘高而瞭，故襲取無機。



항상 옥백(玉帛)·금은(金銀)·부녀(婦女)로 미끼를 삼기 때 문에, 우리 군을 함정에 빠지도록 유인할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우리 군의 추격을 끝내기를 즐긴다.(곧잘 그렇게 한다.)

포로는 반드시 입⁸⁸⁾을 열어 혀를 끊어 버리니⁸⁹⁾, (말을 못 하므로) 왜가 아님을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돌아올 길이 끊긴다.

근거지에 붙어사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까닭에 허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

항복하거나 사로잡은 공장(工匠)들에게 풍족하게 상을 내리는 까닭에 무기(를 비롯한 여러 기구나 기계 등)(器械)를 쉽게 구비한다.

우리나라 사람을 세작(細作)⁹⁰⁾으로 쓰는 까닭에 힐문하여 적발(체포)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사람을 향도(向導)⁹¹⁾로 쓰는 까닭에 진퇴에 능숙하다.

미리 부유한 이들의 이름을 문서로 작성해 놓고, 차례로 빼앗기에 노획하는 것이 많다.

숙식(宿食)할 때에는 반드시 벽을 부수고⁹²⁾ 거처하고, 높은 데 올라가 망을 보는 까닭에 습격할 기회가 없다.

88) 이 경우 '당(塘)' 자의 뜻이 명확하지 않으나, 내용상 입을 말한 것이라 생각된다.

89) 결설(結舌)에는 혀를 끊어 못 쓰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90) 세작(細作): 간첩, 정탐꾼.

91) 향도(向導): 길을 안내하는 사람.

92) 벽을 부수어 구멍을 내어 밖을 볼 수 있게 해 놓고 대기하는 것임.



- 93) 풍미(風靡) : 바람이 불면 풀이 한쪽으로 쓰러지듯 사람을 강제로 복종(굴복) 시키는 것.
- 94) '餌以偽而逸之'의 뜻이 분명치 않지만, 이렇게 번역함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다.
- 95) 천 종류
- 96) 이불, 요
- 97) 배의 창이나 갑판에 대어 가리거나 덮는 덮개 등의 기구. 대나무 등으로 짜서 만든다.
- 98) 솜씨가 좋은 것과 서툰 것.

間裳一被重圍矣餌以偽馘而逸之,或被蓑頂笠沮溺於田畝,或雲巾紵履蕩遊於都市,故使我軍士,或愚而投賊,或疑而殺良.

江海之戰,本非其所長,亦能聯虛舟張弱簾,以空發吾之先鋒,損婦女遺金帛,以弭退吾之後逐.

凡舟之裙牆左右,悉裹布帛被褥而濕之,以拒焚擊,交鬪間,或附蓬而飛越,即雷震而風靡⁹³⁾矣.

倭刀

【刀有高下,技有工拙,倭之富者,不憚重價而制之,廣延高師而學之,其貧者,所操不過下等刀耳,善運刀者,在前衝鋒可畏,頗有限也.

간裳(間裳)을 한 번에 여러 겹 포개어 두르고 시체인 척 속이 고는 도망가거나⁹⁴⁾, 혹은 도롱이를 입고 샷갓을 쓴 채 받두렁에 숨기도 하고, 혹은 운건(雲巾)과 저리(紵履)를 하고 도시로 다니니, 우리 군사들이 어리석게 적을 보내주기도 하고, 의심하다가 양민을 죽이기도 한다.

강과 바다의 전투는 본래 그들이 잘하는 바가 아니지만, 빈 배를 연결하고 부드러운 주렴을 늘어 뜨려 놓아, 우리의 선봉이 헛 공격을 하게 하며, 부너를 다치게 하고 금백(金帛)을 남겨 놓아 우리가 뒤에서 추적하는 것을 물리친다.

무릇 배의 군장(裙牆) 좌우는 모두 포백(布帛)⁹⁵⁾과 피육(被褥)⁹⁶⁾으로 싸고 (그것을) 적서서 화공(火攻)을 막는다. 교전시에 혹 부봉(附蓬)⁹⁷⁾을 날려 넘기면 곧 우레 같은 소리가 나니 (상대방이) 굴복한다.

왜도

【칼에는 고하(高下)가 있으며, 기술에는 공졸(工拙)⁹⁸⁾이 있다. 왜 가운데 부유한 사람은 높은 가격에도 (돈을) 아끼지 않고 칼을 만들고, 뛰어난 스승을 널리 초빙하여 배우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갖는 칼은 하등급의 칼에 불과하니, 칼을 잘 다루는 자가 앞에서 돌진하면 두려워할 만은 하지만 자못 한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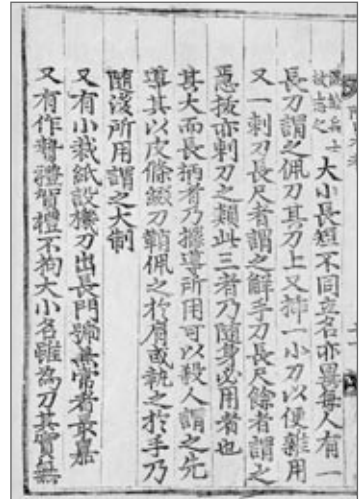
中國人，不知望之，輒震而避焉。擒獲夷刀，亦莫辨高下，混給兵士，故志之。』

大小長短不同，立名亦異，每人有一長刀，謂之佣刀，其刀上又插一小刀，以便雜用，又一刺刀，長尺者，謂之解手刀，長尺餘者，謂之急拔，亦刺刀之類，此三者，乃隨身必用者也。

其大而長柄者，乃擺導所用，可以殺人，謂之先導。其以皮條綴刀鞘佩之於肩，或執之於手，乃隨後所用，謂之大制。

又有小裁紙設機刀，出長門，號兼常者最嘉。

又有作贄禮賀禮，不拘大小，名雖爲刀，其實無用。



있다. 중국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바라보다가 번번이 두려워하며 피한다. 획득한 이도(夷刀) 또한 고하를 구분하지 못하고 병사들에게 섞어서 주는 까닭에 기록한다.』

크고 작음, 길고 짧음이 같지 않으며, 이름 또한 다르다. 모든 사람들이 장도(長刀) 하나를 소유하는데, 용도(佣刀)라 한다. 그 칼 위에 또 하나의 작은 칼을 꽂아두어 잡무에 쓰기 편하도록 한다. 또 하나 자도(刺刀)로 길이가 한자인 것을 해수도(解手刀)라 하고 한자 남짓한 것을 급발(急拔)이라 하니 또한 자도(刺刀)의 종류이다. 이 세 가지는 몸에 지니고 반드시 쓰는 것이다.

(칼이) 크고 자루가 긴 것은 길을 여는 데에 쓰는데,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 선도(先導)라 한다. 가죽 끈으로 칼집을 꿰어 어깨에 차고 쓰거나, 혹은 손에 잡는데 (손에 잡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로) 이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대제(大制)라고 한다.

또한 소재지설기도(小裁紙設機刀)가 있는데, 장문(長門)에서 생산되며, 겸상(兼常)이라 불리우는 것이 가장 좋다.

또 지예(贄禮), 하례(賀禮)를 하는데 쓰는 것(칼)은 크기에 구애받지 않는데, 이름은 비록 도(刀)라고 하지만, 사실 쓸데는 없다.



- 99) 좋은 물건을 말함. 상등급의 칼.
 100) 칼이 어느 시대의 것인지, 좋은 것인지 아닌지.

上等

上庫刀

【山城國盛時，盡取日本各島名匠，封鎖庫中，不限歲月，竭其工巧，謂之上庫刀，其間號寧久者更嘉，世代相傳，以此爲上。】

次等

備前刀

【以有血漕爲巧，刀上或鑿龍或鑿劍或鑿入幡，‘大薩薩春日大明神天照皇大神宮’，皆形著在外，爲美觀者。】

如匠人製造之精，不論刀大小，必於柄上，一面鐫名，一面刻記字號，以爲古今賢否之辨，鎗劍亦然。

상등

상고도

【산성국(山城國)이 번성할 때에 일본 각도의 이름난 장인들을 모두 모아 창고에 가두어 놓고,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그 기교를 다하도록 하였으니, 상고도(上庫刀)라고 한다. 그중 영구(寧久)라 불리우는 것이 더욱 좋으니, 대대로 전하매 이를 상(上)⁹⁹⁾이라 여긴다.】

차등

비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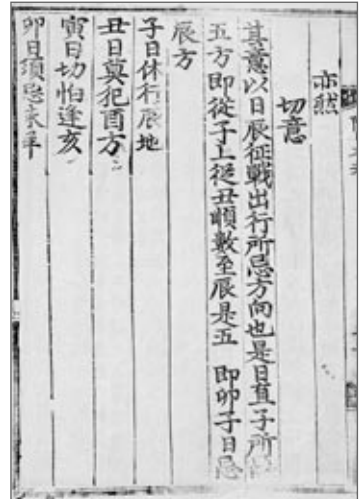
【혈조(血漕)가 있는 것을 좋은 것으로 치는데, 칼 위에 혹은 용(龍)을 새겨 넣기도 하고, 혹은 검(劍)자를 새겨 넣기도 하고, 혹은 ‘대살룡춘일대명신천조황대신궁(大薩薩春日大明神天照皇大神宮)’ 과 같은 표기를 새겨 넣기도 하니, 모두 형태를 바깥에 드러나게 하여 보기 좋게 한 것이다.】

장인이 정성껏 제조한 것은 칼의 크기에 상관없이 반드시 자루 위 한 면에는 이름(名)을 새겨 넣고 한 면에는 자(字)와 호(號)를 새겨 넣어 고금(古今)과 현부(賢否)¹⁰⁰⁾를 구분하도록 하는데, 창(鎗)과 검(劍)도 그러하다.

切意

其意以日辰，征戰出行所忌方向也。是日直子所忌五方，即從子上從丑順數至辰，是五即卯子日忌辰方。

- 子日休行辰地.
- 丑日莫犯西方.
- 寅日切迫逢亥.
- 卯日須忌未羊.



절의(切意)¹⁰¹⁾

그 뜻은 일진(日辰)으로, 전쟁을 하러 나갈 때의 꺼리는 방향이다. 이날 직자(直子)가 꺼리는 바의 오방(五方)은 자(子)와 축(丑)을 쫓아 순서대로 수가 진(辰)에 이르기까지이다. 이 오방은 곧 묘자(卯子)일에 진방(辰方)을 꺼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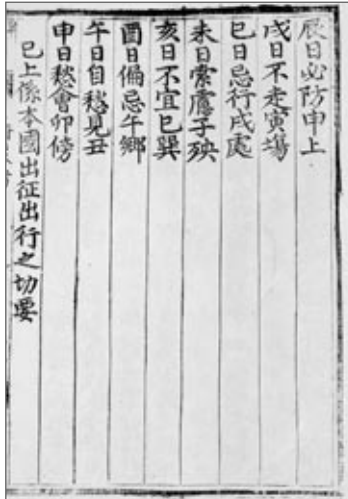
자(子)일에는 진지(辰地)에서 휴식한다.

축(丑)일에는 유(酉) 방향을 범하지 않는다.

인(寅)일에는 해(亥)에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묘(卯)일에는 미양(未羊)을 꺼린다.

101) 이 아래로 첩법, 정행소금, 석주 등의 내용은 옛부터 전쟁에 임할 때 사용하는 기문(奇門)이나 육임(六壬)수(주역의 응용 분야)를 이용한 기법으로서, 매우 심오한 뜻이 있으나, 그 의미를 상술하기에는 어느 한계가 있으며, 오늘날 이 이치를 제대로 아는 이가 드물다. 인식에 따라서는 미신에 가까울 수도 있으니, 자세한 주(註)나 설명은 생략한다.



辰日必防申上.
 戌日不走寅場.
 巳日忌行戌處.
 未日索慮子殃.
 亥日不宜巳巽.
 酉日偏忌午鄉.
 午日自愁見丑.
 申日愁會卯傍.
 已上係本國出征出行之切要.

진(辰)일에는 반드시 신(申)위에서 방어한다.
 술(戌)일에는 인장(寅場)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사(巳)일에는 술처(戌處)를 행군하는 것을 꺼린다.
 미(未)일에는 자양(子殃)을 근심하여 찾는다.
 해(亥)일에는 동남쪽에 머무름이 좋지 않다.
 유(酉)일에는 오향(午鄉)을 꺼린다.
 오(午)일에는 스스로 축(丑)을 보는 것을 근심한다.
 신(申)일에는 묘방(卯傍)에서 마주치는 것을 근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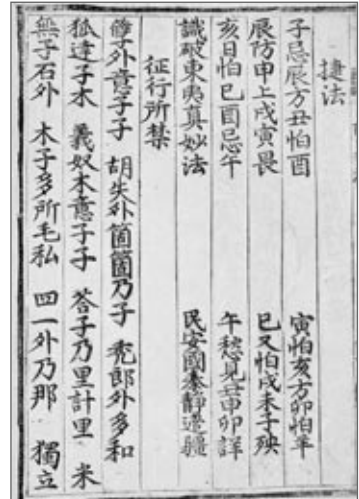
이상은 본국출정출행지절요(本國出征出行之切要)와 관계가 있다.

捷法

子忌辰方丑怕酉.
 寅怕亥方卯怕羊.
 辰防申上戌寅畏.
 巳又怕戌未子殃.
 亥日怕巳酉忌午.
 午愁見丑申卯詳.
 識破東夷真妙法.
 民安國泰靜邊疆.

征行所禁

孽外意子子 胡失外箇箇乃子 禿郎外多和 狐達子木 義奴木意
 子子 荅子乃里計里 米無子石外 木子多所毛私 四一外乃那



첩법

자(子)는 진방(辰方)을 꺼리며 축(丑)은 유(酉)를 두려워한다.

인(寅)은 해방(亥方)을 두려워하며 묘(卯)는 양(羊)을 두려워한다.

진(辰)은 신상(申上)에서 막으며 술(戌)과 인(寅)을 두려워한다.

사(巳)는 또한 술(戌)을 두려워하며 미(未)와 자(子)는 재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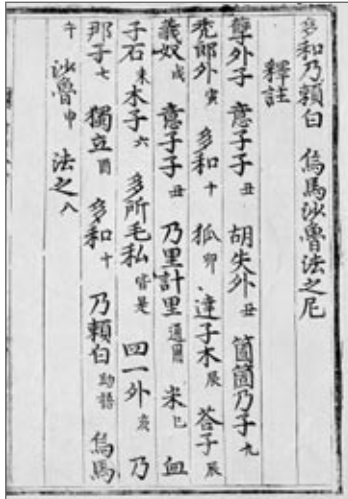
해(亥)일에는 사(巳)를 두려워하며 유(酉)는 오(午)를 꺼린다.

오(午)는 축(丑)을 근심하며 보며 신(申)과 묘(卯)는 상제하다.

동이(東夷)를 깨트리는 참으로 신묘한 법을 아니 백성은 평안하고 나라는 태평해지며 변강은 조용해지리라.

정행소금

일의의자자 호실외개개료자 독랑외다화 호달자목 의노목의
 자자 답자내리게리 미무자석외 목자다소모사 사일외내나



獨立多和乃賴白 烏馬沙魯法之尼

釋註

孽外子 意子子【丑】 胡失外【丑】 箇箇乃子【九】 禿郎外【寅】
 多和【十】 狐【卯】 達子木【辰】 荅子【辰】 義奴【戌】 意子子
 【丑】 乃里計里【通用】 米【巳】 血子石【未】 木子【六】 多所毛
 私【皆是】 四一外【亥】 乃那子【七】 獨立【酉】 多和【十】 乃賴
 白【助語】 烏馬【午】 沙魯【申】 法之【八】

독립다화내뢰백 오마사노범지니

석주

얼외자 의자자【축】 호실외【축】 개개내자【구】 독랑외【인】 다
 화【십】 호【묘】 달자목【진】 답자【진】 의노【술】 의자자【축】 내
 리계리【통용】 미【사】 혈자석【미】 목자【육】 다소모사【개시】 사
 일외【해】 내나자【칠】 독립【유】 다화【십】 내뢰백【조어】 오마
 【오】 사노【신】 범지【팔】

頃在庚子年間，我先王下教都監，使以中國技擊之法作譜傳後，都監祇承聖教，遂即撰進，所謂武藝諸譜是已。第是譜之撰，實據新書本圖而本圖所載，只鈚 劍 棍 牌 槍 笏而已。其他大拳 偃月刀 鈎槍 倭劍諸技，則不載於本圖，故其所撰止於鈚 劍等技，而大拳 偃月諸技，則未之及矣。



지난 경자년간(庚子年間 : 선조 34년, 1600년)에 우리 선왕(宣祖)께옵서 도감(都監)¹⁰²⁾에 하교하시어 중국의 기격법(技擊法)으로 보(譜)를 만들어 후세에 전하게 하셨다. 도감에서 성교(聖教)를 공손히 받들어 마침내 편찬해 올리게 되니 이른바 무예제보(武藝諸譜)가 이것이다. 다만 이 보의 편찬(撰)은 사실 《신서(新書)》¹⁰³⁾의 본도(本圖)에 의거한 것이지만, 본도에 실려 있는 것은 다만 파(鈚)·검(劍)·곤(棍)·패(牌)·창(槍)·선(笏)뿐이고, 기타 대권(大拳)·언월도(偃月刀)·구창(鈎槍)·왜검(倭劍) 등의 여러 기예는 본 도에 실려 있지 않았으니, 편찬한 것은 파(鈚)·검(劍) 등의 기예에 그치고 대권과 언월도의 여러 기예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102) 도감(都監) : 훈련도감(訓練都監)으로 훈국(訓局)이라고도 한다. 선조 26년(1593년) 유성룡(柳成龍)의 주장과 명나라 장수 낙상지(駱尙志)의 권유에 따라 명나라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紀效新書)》를 참고로 하고, 역시 명나라 군대 절강병(浙江兵)의 훈련법을 습득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처음에는 낙상지의 지휘 아래 절강병으로부터 창(鎗)·검(劍)·낭선(狼筈) 등의 기술을 배우게 하다가 뒤에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포수(砲手)·사수(射手)·살수(殺手)의 삼수병(三手兵)으로 분류하여 전문기술을 가진 특수부대를 형성하였다. 인원은 약 4,500 명으로, 이들은 초기의 군대와는 달리 삼수량(三手糧)에 의하여 고용된 급료병(給料兵)으로, 장기 근속병이었다. 이후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고종 19년(1882년)까지 존속하였다.

103) 《신서(新書)》: 《기효신서(紀效新書)》로 중국 명나라 가정(嘉靖) 39년(1560년) 척계광(戚繼光)이 절강현(浙江縣) 참장(參將)으로 있을 때 왜구(倭寇)를 소탕하기 위하여 편찬하였다. 권1 속오편(東伍編)으로부터 권18 치수병편(治水兵編)에 이르는 총 18권으로 이루어졌다. → 색인 참조.



遠甲辰秋臣盧稷方爲提調，以爲各藝比較之際，其無譜可據者，久必傳失其眞已。付前撰譜之手，使之並譜其未譜之技，而適於其時，先王以新書閩本得諸天將者，下之拳譜五十，亦載其中，卽戚將隨後撰入，而初不載於本圖者也。於是既依閩本撰次，又得唐本賽寶全書中宋太祖拳法三十二，參互考証，補其闕遺，名以武藝諸譜續集，而繕寫繼進。

- 104) 노직(盧稷) : 인물색인 참조
- 105) 제조(提調) : 조선 시대 때 각 사(司) 또는 각 청(廳)의 관제(官制)상의 우두머리가 아닌 사람에게 그 관아(官衙)의 일을 다스리게 하던 벼슬로 종1품 또는 2품의 품계(品階)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경우의 관직명(官職名). 정1품이 될 때는 도제조(都提調), 정3품의 당상관(堂上官)이 되는 때는 부제조(副提調)라고 하였다.
- 106) 여기에서 비교란, 일종의 무예 시험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듯 하다.
- 107) 민본(閩本) : 척계광이 은퇴한 후 북방민족과 전투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연병실기(練兵實記)》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효신서》를 다시 정리한 이승운본(李承勛本)이다.
- 108) 척장(戚將) : 인물색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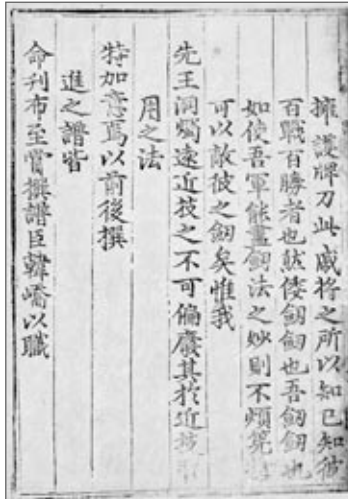
지난 갑진년(甲辰年 : 선조 38년, 1604년) 가을에 신(臣) 노직(盧稷)¹⁰⁴⁾이 막 제조(提調)¹⁰⁵⁾가 되어 각 기예(技藝)를 비교¹⁰⁶⁾할 때에 근거할만한 보(譜)가 없었으니, 세월이 가면 전수에 있어 진전(眞傳)을 잃을 것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전에 보를 만든 사람들에게 보에 실리지 않았던 기예들을 아울러 보를 만들게 하였는데, 그 때에 마침 선왕계음서《신서》민본(閩本)¹⁰⁷⁾을 명나라 장수에게서 얻으셨다. 아래의 권보(拳譜) 50도 또한 그 가운데에 실려 있었던 것이니, 척장(戚將)¹⁰⁸⁾이 후에 지어서 넣었기에 처음에는 본도에 실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에 이미 민본(閩本)에 의거해서 차례로 편찬하였으며, 나아가 중국본 세보전서(賽寶全書) 가운데 송(宋)나라 태조(太祖)의 권법 32세를 얻어 서로 참고해 고증하여 빠진 부분을 보충하여 무예제보속집(武藝諸譜續集)이라 이름하고 선사(繕寫)하여 (왕께) 올렸다.

蓋禦敵之器，有遠技近技，弓矢鳥銃，遠技也，刀劍槍鈚之屬，近技也。倭奴之於戰也，遠則放銃巧中，近則挺刃突進，以此天下莫能當其鋒。若徒恃遠技不習近技，而或致遠技之窮，則雖百千之衆，未免爲一劍之所芟刈。故戚將之禦倭也，以銃對銃，以劍當劍，而猶患我之劍法，不足以敵倭之長技，又必制爲笏槍擁護牌刀，



대개 적을 막는 병기(兵器)에는 원기(遠技)와 근기(近技)가 있다. 궁시(弓矢)와 조총(鳥銃)은 원기(遠技)이고, 도(刀)·검(劍)·창(槍)·파(鈚)같은 부류는 근기(近技)이다. 왜노(倭奴)들은 전투시에, 멀리 있으면 총을 쏘아 잘 맞히고, 가까이 있으면 칼을 뽑아 돌진하니, 이 때문에 천하에 그 칼끝을 당할 자가 없었다. 만약 한갓 원기(遠技)만을 믿고 근기(近技)를 익히지 않는다면 원기를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록 수 백, 수 천의 무리라 하더라도 하나의 검(劍)에 베이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척 장군이 왜를 방어함에 있어, 총(銃)으로 총을 대적하고 검으로 검을 대적하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우리의 검이 왜적의 장기(長技)를 대적하기에는 부족함을 걱정하여, 거듭하여 반드시 선(笏)과 창(槍)으로 패(牌)와 도(刀)를 옹호하도록 하였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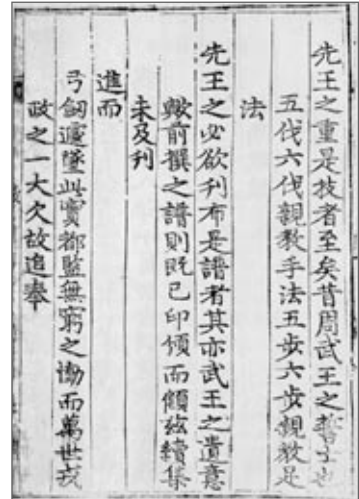
- 109) 전에 편찬한 무예제보와 뒤에 편찬한 무예제보변역속집
 110) 한교(韓嶠) : 인물색인 참조.
 111) 직(職)은 식(識)의 오식으로 생 각된다.

此戚將之所以知己知彼，百戰百勝者也。然倭劍劍也，吾劍劍也，如使吾軍能盡劍法之妙，則不煩筭槍，可以敵彼之劍矣。惟我先王洞燭，遠近技之不可偏廢，其於近技習用之法，特加意焉。以前後撰進之譜，皆命刊布，至賞撰譜，臣韓嶠，以職先王之重是技者至矣。

이는 척 장군의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백승(百戰百勝)’인 것이다.

그러나 왜검도 검이고, 우리 검도 검이다. 우리 군사들로 하여금 검법의 묘를 다할 수 있게 한다면 번거롭게 선(筭), 창(鎗)을 쓰지 않더라도 그들의 검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선왕께서 원기(遠技)와 근기(近技) 가운데 어느 한쪽을 폐할 수 없음을 밝게 아시기에, 근기(近技)를 익혀 쓰는 방법에 특별히 더 뜻을 기울이셨다. 전후(前後)로 편찬해 올린 보(譜)¹⁰⁹⁾를 모두 간행하여 반포하라고 명하시고, 보(譜)를 찬한 것에 대해 지극히 상찬(賞讚)하시니, 신(臣) 한교(韓嶠)¹¹⁰⁾가 (이로써) 선왕께옵서 이 기예를 중시하심이 지극함을 알았다.¹¹¹⁾

昔周武王之誓士也，五伐六伐親教手法，五步六步親教足法，先王之必欲刊布，是譜者，其亦武王之遺意歟！前撰之譜，則既已印頒，而顧茲續集未及刊進，而弓劍遽墜，此實都監無窮之慟，而萬世戎政之一大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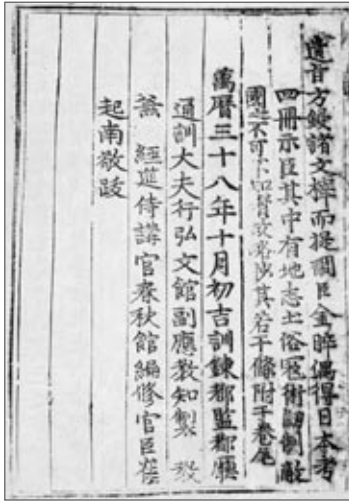
옛날 주(周)나라 무왕(武王)께서 병사들에게 다짐하시기를, 오벌(五伐) 육벌(六伐)¹¹²⁾의 수법(手法)을 직접 가르치시며, 오보(五步) 육보(六步)¹¹³⁾의 족법(足法)을 직접 가르친다 하셨으니¹¹⁴⁾, 선왕께옵서 이 보를 반드시 간행하여 반포하고자 하신 것은 또한 무왕께서 남기신 뜻과 같지 않겠는가! 전에 편찬한 보(譜)는 이미 인쇄하여 반포하였으나, 이 속집(續集)은 아직 간행하여 (선왕께) 올리지 못하였는데, 선왕께옵서 붕어하시었다¹¹⁵⁾. 이는 실로 도감(都監)에서 한없이 애통하게 여기는 것이었으며, 만세(萬世)의 군사 정책에 있어서 일대 흠이었다.

112)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113) 전진하는 것을 말한다.

114) 서경(書經) 목서(牧書)에 나오는 말이다. 공격시 6, 7 보(步) 전진하다가 한번 서서 대열을 정리 정돈을 하고, 치고 받기를 7회 이상 하지 않고 정리 정돈을 한번 하여, 항상 대열이 정돈된 상태로 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115) 궁검거추(弓劍遽墜) : 임금이 죽음을 말한다. 고대 중국의 황제(黃帝) 현원씨가 죽었을 때, 용을 타고 올라가는데, 칼과 활이 갑자기 떨어졌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故追奉遺旨，方錄諸文梓而。提調臣金睟，偶得 日本考 四冊示臣，其中有地志土俗寇術劍制，敵國之不可不知者。故略抄其若干條，附于卷尾。

萬曆三十八年十月初吉，訓鍊都監都廳，通訓大夫，行弘文館副應教，知製教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臣，崔起南，敬跋。

- 116) 김수(金睟) : 인물색인 참조.
- 117) 만력(萬曆)은 명나라 신종(神宗) 연호(年號)이며, 만력 38년은 1610년(광해군 2)이다.
- 118) 최기남(崔起南)
- 119) 발문(跋文) : 책의 본문 끝에 그 내용의 대강이나 또는 그에 관련된 일을 간략하게 적은 글이다.

그래서 유지(遺旨)를 받들어 비로소 문재(文梓)에 새겼다. 제조(提調) 신(臣) 김수(金睟)¹¹⁶⁾가 우연히 일본고(日本考) 네 책을 얻어 신에게 보여 주었는데, 그 속에는 지지(地志)·토속(土俗)·구술(寇術)·검제(劍制) 등, 적국에 대해 알지 못해서 안될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대략 약간의 내용을 뽑아서 권말에 덧붙였다.

만력(萬曆) 38년 10월 초하루¹¹⁷⁾, 훈련도감도청 통훈대부 행 홍문관부응교 지제교겸경연시강관 춘추관편수관 신 최기남(崔起南)¹¹⁸⁾이 공손히 발문(跋文)¹¹⁹⁾을 쓰다.